

두 사람의 언약 · 전서

다섯 문서에 부치는 서문
만 18 세 이상, 온전히 자발한 성인 전용

지금 손에 든 것

당신이 손에 든 것은 어떤 특정한 결혼의 틀이다. 두 사람이 합의한 권력의 내어드림, 격식 있는 훈육, 그리고 아낌없는 상호 헌신 위에 세워진 결혼이다. 이 틀 안에서는 아내가 다스리고 남편이 섬긴다 — 깊이 헤아려, 온전히, 그리고 그 자신의 선택으로 —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믿기 때문이다. 중심이 하나뿐인 결혼이, 선의 위를 떠도는 두 대등한 동업자의 결혼보다 더 깊이 흐르고, 더 오래 버티며, 더 많이 짓는다고. 이 문서들은 그 믿음을 적어 내리고, 서명하고, 벽에 걸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문간에서 솔직히 일러둔다. 안의 문서들은 조금도 에두르지 않는다. 정조와 열쇠를, 아내의 무릎에 엎드린 남편을, 미리 정해져 항변이 통하지 않는 교정을, 결박과 견딜과 자국을 말한다. 그것이 당신 성미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축복과 함께 이 책을 덮으면 된다 — 이 틀은 결혼의 한 가지 진중한 방식이지, 다른 어떤 방식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그러나 방금 그 목록의 무엇인가가 당신을 물려서게 하는 대신 두근거리게 했다면 — 계속 읽으라.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쓰였다.

모든 것 아래 놓인 두 가지 이치

첫째. 격식은 열정의 적이 아니다 — 모호함이 적이다. 권력을 가지고 노는 부부 대부분은 조각으로 논다. 하룻밤의 놀이, 이튿날 아침의 사과, 기억도 없고, 자람도 없고, 디딜 바닥도 없다. 이 문서들은 조각을 건축으로 바꾼다. 모든 일은 일어나기 전에 말해지고, 서명되기 전에 적히고, 행해지기 전에 서명된다. 정지어는 첫 교정보다 먼저 정해진다. 한계는 첫 도구보다 먼저 기록된다. 번문욕례로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렬함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다. 규칙이 없을까 봐 남몰래 두려운 일에,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한다.

둘째. 이것은 흰한 대낮에만 작동한다. 이 전서의 모든 쪽은, 나머지 모든 쪽을 읽은 두 성인을 전제한다 — 소리 내어, 함께, 맑은 정신으로, 서두르지 않고. 이 안의 어떤 것도 숨겨 두고 조금씩 스미게 하려고, 빼놓아 무르게 보이려고, 나중에 들키라고 설계되지 않았다. 반쪽짜리 문서에 설득된 배우자는 아무것에도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 서문에서 단 한 문장만 가져간다면 이것을 가져가라. 전부 밝히고, 차근히 나아가라. 다 보여주고, 가볍게 시작하고, 다스리는 이에게 걸음을 맡기라. 이 언약의 도덕적 주춧돌은 단 하나의 사실이다 — 그녀가 눈을 뜨고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눈이 정말로 떠 있었을 때에만 사실이다.

다섯 문서

전서에는 다섯 문서가 담겨 있다. 이 차례로 읽되, 어느 것에든 서명하기 전에 다섯 모두를 읽으라.

《복종과 소유의 언약서》 — 맹세. 이 도리의 으뜸 강령 — 그의 내어드림, 그녀의 권위, 그녀를 매는 표준, 전체의 영속. 벽에 걸리는 것이 이 문서요, 나머지는 모두 이것을 섬긴다.

《한계 장전》 — 실무. 신호와 정지어, 건강의 알림, 수용과 금지를 적는 도구와 교정, 세기의 상한, 결박과 그 안전의 법, 벌서기의 공, 사후의 보살핌. 《장전》이 채워지기 전에 《언약서》는 효력이 없다 — 맹세가 절대를 말하고 《장전》이 한계를 말할 때는 《장전》이 이긴다. 안전의 지식 거의 전부가 이 안에 산다. 무게를 받치는 벽으로 대하라.

《시작의 의례》 — 문지방. 첫 서명의 밤을 위한 아홉 마디 예식 — 낭독, 벅음, 잠금, 첫 교정, 언약의 봉인. 한 번 올리고, 평생 기억한다.

《바깥 무대의 법도》 — 문밖의 세상. 이 도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가. 그의 곁 그녀의 자리, 그녀의 살핌, 기록과 복기, 그리고 이 집의 신조 — 이 모든 짜임이 닫고 선, 나뉘지 않는 마음의 이치.

《욕망의 훈육》 — 불. 애태움과 절제와 열쇠를 내주지 않음의 지침 — 작정한 이레로, 잠기지 않은 결혼은 지필 수 없는 불을 쌓는 법.

어떻게 시작하나

천천히. 문서가 그리는 것은 만개한 성숙의 도리다. 거기서 시작하는 부부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먼저 전서를 함께 다 읽으라 — 전부, 아직 자신에게는 멀다 싶은 대목까지. 그런 다음 《장전》을 정직하게 채우되, 그 태반을 일단 닫힌 것으로 적으라. 시작하는 언약은 날마다의 표준과 손바닥 하나와 저녁의 문안만 담아도 좋다 — 그것은 이 도리의 뭉힌 판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옳게 행해진 이 도리다. 《장전》이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도리는 다스리는 이의 걸음대로 자란다. 한계가 넓어지는 것은 오직 글로써, 오직 두 사람이 함께, 오직 그녀가 옮길 때뿐. 설계는 얼마든지 크게, 첫걸음은 얼마든지 작게.

그리고 말하라 — 전에도, 중에도, 후에도, 늘. 이런 격식 안에서 꽃피는 부부는 대화를 규칙으로 갈음해야 했던 부부가 아니라, 이토록 무거운 규칙을 감당할 만큼 말이 잘 통했던 부부다.

이 전서가 아닌 것

법률 문서가 아니며, 매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양심뿐이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안의 안전 지식은 바닥이지 천장이 아니다 — 더 읽고, 더 배우고, 미심쩍을 때는 덜 하라. 머뭇거리는 배우자를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다. 머뭇거림은 하나의 대답이며, 그 대답은 '아니오'다. 만 18 세 미만의 그 누구를 위해서도, 어떤 역할로도, 어떤 사정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결혼이 이래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이 한 결혼 — 이 몇 장에 두 이름을 적게 될 바로 이 결혼 — 이, 다른 모든 방식을 다 보고 나서,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다섯 문서. 두 서명. 하나의 중심.

다 읽으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가볍게 시작하라. 정중히 다시 맹세하라.

훈육과 학대에 관하여

언약과 해약을 가리는 법, 그리고 해약일 때 할 일
언약과 해약을 가리는 법, 그리고 해약일 때 할 일

그 선은 가늘지 않다

이 문서들이 말하는 것과 학대 사이에 가는 선이 있다고들 한다.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안에서 보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선 가운데 하나이며, 이 전서가 존재하는 까닭도 상당 부분 그 선을 굽기 위함이다. 이 안의 어떤 쪽도 폭행이나 강요, 스스로 택하지 않은 사람을 해치는 일을 옳다 하지 않는다.

두 행위가 똑같아 보이면서 정반대일 수 있다. 둘을 가르는 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르는 것은 동의, 미리 한 합의, 적어 둔 한계, 멈출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그렇기에 이곳의 모든 관행은 적히고, 경계 지어지고, 서명된다. 학대는 모호함을 필요로 한다. 언약은 명료함 없이는 작동하지 못한다.

언약의 모습

맑은 정신의 두 성인이 미리, 글로 합의한다. 한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다. 모든 것을 멈추는 정지어가 있고, 그것을 쓴 일로 벌 받는 법은 결코 없다. 어느 쪽이든 언제든 멈추고 거둘 수 있다. 교정은 권위에서 나오지 결코 노여움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후의 보살핌은 은혜가 아니라 본분이다. 두 사람 모두 표준에 매인다 — 그녀의 표준은 제 8 조에 적혀 있으며, 이것이 한쪽만의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없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고, 더 자기 자신다워진다.

학대의 모습

강요되거나, 당연시되거나, 압력으로 짜낸다. 규칙이 예고 없이 바뀐다. 그만하라는 말이 무시되고, 비웃음을 사고, 벌을 부른다. 떠나는 일이 협박으로 막히거나 불가능해진다. 교정이 성미와 함께, 흔히 술과 함께 온다. 그 뒤에는 침묵이나 탓이나 멸시가 있다. 한쪽은 규칙 바깥에 선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의사에게도 숨긴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겁먹고, 외로워진다.

가장 분명한 하나의 시험은 정지 신호다. 한마디가 일을 멈추지 못하는 곳에는 언약이 없다 — 무엇에 서명했든, 당사자들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뒤쪽 목록에서 자기 삶을 본 사람에게

그 설명에서 당신의 삶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일이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한때 동의했다는 것도, 일부를 즐겼다는 것도, 서명했다는 것도, 남성이라는 것도, 학대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도움은 거의 모든 나라에 있고, 무료이며, 비밀이 지켜진다. 자기 나라의 가정폭력 지원 기관을 찾으라. 기기가 감시될까 염려된다면 다른 기기를 쓰라.

당장 위험하다면 즉시 긴급 서비스에 연락하라. 한국에서는 112 또는 119.

법에 관하여

동의를 모든 법적 물음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여러 나라에서 성인 사이의 합의는 중대한 신체 상해에 관한 혐의의 항변이 되지 못하며, 법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여기 적힌 것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이 문서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사는 곳의 법을 알아야 한다.

이 쪽이 있는 까닭

글쓴이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헌신과 해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틀은 그 둘 가운데 무엇도 말할 자격이 없다 — 그리고 자신이 그 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 말하지 못하는 부부는,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멈추어야 한다.

헌신과 해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틀은 그 둘 가운데 무엇도 말할 자격이 없다.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부탁받았으나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여자에게
부탁받았으나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여자에게

당신은 부탁받았다

누군가 이 문서들을 당신 앞에 놓았다. 다른 무엇이 사실이든 이 한 가지는 중요하다. 당신은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부탁받았다. 당신이 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이 쪽에서 더 읽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답이며, 이 전서는 세 군데에서 그렇게 말한다. 다음은 궁금하거나, 응할 마음이 있거나, 이미 절반쯤 들어와 있는 여자를 위해 — 그리고 주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물음을 안고 있는 사람을 위해 쓰였다.

“이걸 원하는 내가 잔인한 걸까?”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두려움이니 평이하게 답한다. 아니다. 어떤 행위를 잔인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원해지지 않고, 합의되지 않고, 환영받지 않는다는 점이지, 아프다는 점이 아니다. 당신은 제정신인 성인 남자로부터, 그가 원하고, 오래 생각했고, 나중에 고마워할 일을 부탁받고 있다. 그것은 잔인함의 반대다. 특정한 모양을 한 돌봄의 청이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데 대한 거부함은 처음에는 거의 누구에게나 있고, 거의 누구에게서나 지나간다. 이 자리에 선 여자들 대부분이 같은 곡선을 말한다. 망설임, 그다음 호기심, 그다음 자신이 이 일에 꽤 능하다는 발견 그리고 — 아무도 미리 알려 주지 않는 대목이지만 — 능한 것이 좋다는 발견. 그 길의 어디에 있든, 아직 출발점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 당신에게 잘못된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권위는 의상이 아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가축을 걸치거나, 갖지 않은 성격을 지어낼 필요가 없다.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여자들은 대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한 사람이다. 이 언약에서의 명령은 조용하며, 정하는 것, 지켜보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당신의 본래 결이 연극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단단하다면, 이미 어려운 쪽 절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없는 욕망을 지어낼 필요도 없다. 그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하기 때문에 시작해도 되고, 자신의 식욕은 제 때에 오게 두어도 된다. 대개는 온다. 해서는 안 되는 단 하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척하는 일이다. 이 틀이 견디지 못하는 유일한 거것이 그것이다.

정말로 물어야 할 것

“내가 그를 다치게 하고 있나”가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이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부상이 아니다. 한 손으로 복종하고 다른 손으로 방향을 잡는 남편 — 던지시 말하고, 암시하고, 거절당하면 토라지고, 따르는 척하면서 각본을 쓰는 남편이다. 바깥세상에는 이름까지 있다. 아래에서 다스리기

지켜보라. 그것은 모든 것을 속 빈 것으로 만든다. 모든 자리가 그가 골랐을 대로 흘러간다면, 거절이 기분으로 되돌아온다면, 당신의 절제가 그를 다스리는 대신 실망시킨다면 — 당신은 안주인이 아니라 부리는 사람이다. 처방은 간단하고 즉각적이다. 그가 몹시 원하는 무언가를, 당신이 고른 순간에, 이유를 대지 않고 거절하라. 그의 반응이 당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알려 준다. 그것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남자는 당신에게 진짜 권위를 준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는 그 흥내를 준 것이다.

우스울 만큼 작게 시작하라

만개한 성숙한 도리를 그린 문서를 건네받겠지만, 당분간 그 대부분은 무시해도 좋다.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첫 한 달은 정해진 저녁 의식 하나, 당신의 손바닥, 그리고 그가 날마다 지켜야 할 기준 하나면 된다. 그것은 묶힌 판이 아니다. 서문이 분명히 말하듯, 그것이 바로 옳게 행해진 이 체계다.

《장전》의 태반을 달힌 것으로 적어 두라. 나중에 열 수 있고, 열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한계는 글로, 두 사람이 함께, 당신이 옮길 때에만 넓어진다 — 즉 이 일의 걸음은 그가 아무리 서둘러도 그의 것이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라. 그에게 이로울 것이고, 도구에 관한 의견을 요구받기 전에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낼 시간이 될 것이다.

그가 실제로 청하는 것

그가 고통을 청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니다, 적어도 주로는 아니다. 그가 청하는 것은 주목이다 — 가까이서 지켜봐지고, 기준에 붙들리고, 어긋나면 바로잡히고, 자기를 책임지기로 한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훈육은 도구이고, 보여지는 것이 본체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크게 닿는 부분이 당신에게는 가장 밋밋해 보인다. 당신이 알아차린다는 것. 저녁 자리에서 닫혀 있었다고 말할 때, 일이 느슨해졌다고 말할 때, 잘한 것을 보았다고 말할 때 — 당신은 이 언약의 중심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문장부호다.

그리고 당신이 얻는 것

이 말은 해야 한다. 이 문서들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자선인 척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행하면 당신은 마음을 쓰고, 뜻이 있고, 당신에게 즉각 반응하는 남편을 얻는다 — 조종이 아니라, 그가 기준에 붙들어 달라 청했고 당신이 그러기로 했기 때문이다. 많은 아내가 여러 해를 던지시 흘리며 보낸다. 당신은 그냥 말하면 된다.

더 드문 것도 얻는다. 중심이 분명한 결혼, 중요한 것이 말해지지 않은 채 남지 않는 결혼, 그리고 대부분의 결혼을 조용히 죽이는 표류가 보이지 않게 쌓일 자리가 없는 결혼. 그것은 그가 주는 선물이 아니다. 두 사람이 짓는 것이며, 조문 제 8 조가 당신 자신의 표준을 법의 일부로 삼은 것은 바로 이것이 한쪽만의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의 절대적 권리

당신은 언제든, 이유가 있든 없든, 무엇이든 멈출 수 있다. 설명 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전에 동의한 것을 반복할 수 있다. 혼인은 지키면서 이 약정만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글로 동의한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뒤집지 못한다 — 《한계 장전》과 정지 신호가 절대를 말하는 쪽까지 포함해 이 전서의 모든 쪽을 다스린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의문시되거나, 논쟁거리가 되거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 언약이 아니다. 그 옷을 입은 다른 것이며, 《훈육과 학대에 관하여》라는 쪽이 두 개의 열로 그 차이를 알려 줄 것이다.

당신은 부탁받았다. 이 전서의 모든 것이 그것이 참으로 남아 있는 데 달려 있다.

먼저 알아본 아내에게

남편이 표류하고 있고, 자신에게 무엇이 허락되는지 모르는 여자에게

「두 사람의 연약」 전서의 벗 — 만 18 세 이상 성인 전용

당신이 지켜봐 온 것

그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당신은 알아차렸다. 저녁이 납작해졌다. 한때 그를 관통하던 야심이 조용해졌다. 그는 일하고 있거나,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갈 때보다 작아져서 돌아온다. 말수가 줄었거나,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만 한다. 그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행하지는 않다 — 다만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그만둔 듯하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것이 보인다. 그것이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아마 흔한 처방도 다 해 보았을 것이다. 무슨 일이냐 묻고, 격려하고, 혼자 두고,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어느 것도 맞는 연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먼저 알아본 아내, 자신에게 무엇이 허락되는지 모르는 아내를 위해 쓰였다.

무엇보다 먼저 — 표류인가, 병인가

이 구별은 이 전서의 어느 쪽보다 무겁다. 정직하게 하라. 표류란 방향과 구조와 도전을 잃은 남자다 — 여러 해 아무것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아 미끄러지고 물러진 남자. 이 연약이 답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울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지나치게 자거나 거의 자지 못한다면, 노력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다면, 짐이 된다면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하루를 넘기려 술을 마신다면, 체중이 급히 빠지거나 불었다면 — 그는 구조가 필요한 남자가 아니다. 의사가 필요한 남자이며, 우울한 사람에게 씌운 구조는 그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가 이미 자기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 나는 실패했고 이제 관리까지 받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의사가 먼저이고 이 전서는 기다린다. 반년 뒤에도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끊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것을 옆으로 치우고 오늘 도움을 구하라 — 이 쪽들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세 번째 상태 — 갇힘

표류와 병 사이에 한 상태가 있고, 셋 중 가장 흔한 것이 이것이다. 그는 물러지지도 병들지도 않았다. 잠겨 있다. 너무 많이 지고, 뜨겁게 달리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으며, 몇 달째 그중 무엇도 내려놓지 못했다. 당신이 보는 조용함은 비어 있음이 아니다 — 대화에도, 농담에도, 당신에게도 돌릴 여력이 남지 않은 남자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구체적이다. 이 안에 있는 남자는 대개 스스로에게 멈출 허락을 주지 못한다. 쉬이 실패처럼 느껴지고, 실패야말로 그가 달아나는 것이므로, 그는 계속 달리면서 모든 일에 점점 서툴러진다. 그런 남자에게 좀 쉬라고 말해 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도 안다. 못 하는 것이다. 멈춘다는 것 또한 하나의 결정이고,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되돌림이 듣는 까닭

여기서 이 문서들의 훈육이 제 자리를 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치료처럼 보이지 않으니,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 둘 만하다.

당신 무릎 위에서의 한 시간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그에게서 모든 결정을 거둬 간다 — 그 한 시간 그는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으며, 대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그를 머리에서 끌어내 몸으로 밀어 넣는다. 꾸준히 매를 맞으면서 계약을 곱씹는 사람은 없고, 그 되새김의 고리가 끊기는 것이 몇 주 만의 첫 틈인 경우가 많다. 스스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지침을 준다. 그리고 뒤따르는 것 — 가라앉음, 온기, 안겨 있음 — 이 오래 긴장해 있던 신경 위에 내려앉는다.

그러나 핵심은 그가 스스로에게는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놓기로 고른 것이 아니다. 놓게 된 것이다. 쉬는 것이 그만두는 것처럼 느껴져 쉬지 못하는 남자에게, 지휘에서 완전히 내려지는 일은 응석이 아니다 — 열리는 유일한 문이다. 한 시간 동안 그는 책임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그 허락은 다른 사람에게서 와야 한다. 아니면 섬에 들지 않는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는 부부들은 뒤의 효과를 똑같이 말한다. 시야가 돌아오고, 그가 목 조르던 문제가 실제 크기로 줄고,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삼십 분에서 한 시간이 보통이다. 되돌림이지 치유가 아니다 — 감당 못할 일자리나 불가능한 한 해를 고치지는 못한다. 그것이 하는 일은, 그것들을 마주해야 할 그 남자를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셋을 가려내기

무엇이 사라졌는지 보라. 방향과 식욕이 사라졌고 편안한 곳에서 미끄러지며 더 뻗기를 그쳤다면 그것은 표류이고, 답은 구조다. 여력이 사라졌다면 — 여전히 마음 쓰고 여전히 원하지만 남은 것이 없고 회복할 만큼 멈추지도 못한다면 — 그것은 간헐이고, 답은 되돌림과 그가 무엇을 왜 지고 있는지에 관한 진지한 대화다. 기쁨 자체가 사라졌다면 — 아무것도 그에게 닿지 않고, 아무것도 원해지지 않으며, 어둠이 그의 값어치나 존재를 말하기 시작했다면 — 그것은 병이고, 의사가 이 전서의 무엇보다 앞선다.

한 번에 둘 이상이 보일 수도 있다. 한 해를 간혀 지낸 남자가 압박이 마침내 그를 꺾은 뒤에 표류하기 시작할 수 있다. 먼저 보이는 것을 다루고, 옳게 짚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한 달 뒤에 다시 보라.

이것을 내미는 일은 모욕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여자를 멈춰 세우는 두려움은, 무슨 말이든 하면 그를 창피하게 만들 것이고 그 한마디가 그를 끝장내리라는 것이다. 점잖은 직감이고, 틀렸다. 까닭은 이렇다.

표류하는 남자가 보통 느끼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다. 낮고 끊이지 않는, 말해지지 않은 실패감이며, 그는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 또렷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의 삶에서 아무도 그에게 참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동료는 하지 않는다. 친구도 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훌륭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 참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신 하나뿐이며, 그가 살고 있는 그 침묵은 친절이 아니다 — 예의 바른 버림이다.

무언가를 하기로 정한 사람에게 또렷이 보이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에게 큰 놓임이다. 유쾌하지는 않다. 놓임이 유쾌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 —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못 본 척하는 동안 예의 바르게 계속 가라앉는 것 — 은 훨씬 나쁘고, 말로는 못 해도 그는 그것을 안다.

당신이 실제로 내미는 것

말하기 전에 스스로 분명히 해 두라. 그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물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지쳤다는 이유로 별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방향을 책임지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기준을 붙들고, 알아차리고, 그에게 요구하고, 그의 노력이 갈 곳과 답할 상대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

그것이 제안이고, 큰 제안이다. 대부분의 남자에게는 그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고용주는 성과를 원하지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친구들은 편한 동석을 원한다. 세상은 어떤 남자의 줄어드는 판이라도 기꺼이 무기한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빠져 있던 단 하나다. 그가 무엇이 될지에 투자했기에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권위.

어떻게 꺼낼 것인가

다툼 한가운데서는 안 된다. 나쁜 하루의 끝에서도 안 된다. 조용한 저녁을 골라 앉아서, 임상적이지 않게 그러나 곧바로 말하라. 아래는 외울 대본이 아니지만 모양은 이러하며, 마음껏 빌려 써도 좋다.

“할 말이 있는데, 대답하기 전에 끝까지 들어 줬으면 해. 한동안 당신을 지켜봤어. 혼자 지고 있으면 안 될 걸 혼자 지고 있었던 것 같아. 조용해졌어. 불행한 게 아니라 — 조용해. 그리고 작아졌어.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걸 계속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생각이 없어.”

“변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불평도 아니야. 다른 걸 제안하고 싶어. 내가 제대로 손을 대고 싶어 — 당신이 무엇을 겨냥할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는 일에.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야. 당신은 이보다 더한 값어치가 있고, 누군가는 그걸 소리 내어 말해야 하니까.”

그런 다음 멈추고 그가 답하게 하라. 침묵을 채우지 말라.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든 — 농담, 방어, 눈물, 넘기려는 농담 — 그것은 정보이고 모두 정상이다. 남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일이 드물고, 진심인 상대에게서는 거의 없다.

자기 동기에 정직하라

한 가지 경계, 그리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다. 당신이 정말 이것을 원하는지 — 아니면 그저 그가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 물으라.

순전히 구조(救助)로 들어선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 편이다. 권위 자체에 식욕이 없다면 날마다의 일이 한 달 안에 성가셔지고, 당신이 다스리는 대신 연기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그는 느낀다. 그것은 아예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그에게 나쁘다.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걱정에서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괜찮다 — 많은 여자가 그러하고 식욕은 흔히 나중에 온다. 그러나 어느 쪽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그에게도 정직하라. 이 틀은 어느 방향의 가장(假裝)도 견디지 못한다.

쓸모없을 만큼 작게 시작하라

무엇을 정하든 거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라. 그가 날마다 지켜야 할 기준 하나, 그리고 정해진 한 시각에 오늘 어땠는지 묻고 본 것을 평이하게 말해 주는 것. 도구도, 의식도, 뒤쪽 문서의 어떤 것도 없이. 그렇게 여섯 주면 어떤 논의보다 두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듣기 시작하면 그보다 당신이 먼저 알아차린다 — 자세에서, 집중에서, 그리고 말하기 전에 그가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체계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전서의 나머지 전부가 그 토대 위에 서 있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그의 답이며 그대로 서 있게 두어야 한다. 다스려지기를 청하지 않은 남자를 다스릴 수는 없고, 원치 않는 남편에게 씌운 구조는 이 언약이 아니다 — 그것은 그저 통제이며, 그를 크게 하는 대신 작게 만든다.

할 말을 한 번, 잘 하고, 문은 열어 두라. 많은 남자가 몇 달 뒤 자기 조건으로, 혼자 생각해 본 끝에 이 대화로 돌아온다. 그것이 오래가는 판이다. 그리고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애쓰는 남자를 위해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참말을 했고, 함께 지겠다고 내밀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가라앉아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묻고 싶으나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는 남자에게

「두 사람의 언약」 전서의 벗 — 만 18 세 이상 성인 전용

묻기 전에

당신은 무언가를 그녀 앞에 놓고 싶어 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려앉을지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은 마땅하며 간직할 만하다 —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든다. 다음은 아직 묻지 않은 남자, 서투르게 물은 남자, 혹은 이 절반을 말없이 살아오다 이제 드러내려는 남자를 위해 쓰였다.

모든 것을 상 위에 놓고 물으라

가장 해로운 짓은 나누어 밝히는 것이다 — 부드러운 판을 먼저, 나머지는 그녀가 익숙해진 뒤에. 그러지 말라. 절반의 그림에 동의한 아내는 아무것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이며, 감춰진 것을 알게 되는 날 당신 손에 있는 것은 언약이 아니다. 그녀의 서명이 붙은 속임수이고, 당신이 준 모든 안심의 소급하여 의심받게 된다.

그러니 전부 건네라. 그녀가 싫어하리라 짐작되는 부분까지 포함한 전서를 주고, 이것이 전부라고 분명히 말하라. 그런 다음 진짜 중요한 제안을 하라 — 걸음은 그녀가 정하고, 대부분은 닫힌 채로 두고, 원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열지 않는다고. 전부 밝히고, 차근차근 나아가기. 이 한 문장이 제안과 조종을 가른다.

그녀의 예는 자유로워야 하며, 아니면 값이 없다

다툼 뒤 새벽 두 시에 짜낸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토라짐으로, 되풀이로, 거절하는 편을 불편하게 만들어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화를 끝내는 편이 쉬워서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에게서 거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당신도 알고 그녀도 안다. 그런 예는 이후의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 그녀가 이것을 원하는지, 당신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다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제대로 물으라. 그리고 묻기를 그치라. 몇 주가 필요하면 몇 주를 주라. 몇 달이 필요하면 몇 달을 주라. 이 구조 전체가 하나의 사실에 달려 있다 — 그녀가 눈을 뜨고 골랐다는 것 — 그리고 그 사실은 나중에 지어낼 수 없다.

가장 어려운 훈육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매가 아니다. 방향을 잡지 않는 일이다. 당신은 거의 틀림없이 이것을 여러 해 동안 머릿속에서 세세히 예행했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강한 의견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 의견 하나하나가 당신이 청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위협이다.

넌지시 말하고, 암시하고, 그녀의 방식을 고쳐 주고, 거절당하면 토라지고, 그녀가 당신과 다르게 고를 때 실망을 내비친다면 — 당신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복종하는 척하며 지시하는 것이고, 그녀는 이름 붙이지 못해도 그것을 느낀다. 시험은 간단하고, 당신 스스로 청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당신이 몹시 원하는 것을 이유도 대지 않고 거절할 때, 잘 받아들이라. 고맙다고 하라. 그 한 번의 행위가 백 번의 순한 교정보다 이 관계를 세운다.

그녀의 걸음으로, 당신의 걸음이 아니라

그녀는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그것이 옳고, 여기서의 조급함이야말로 남자가 방금 받은 것을 잃는 가장 흔한 길이다. 석 달 동안 저녁 일과만 원한다면 그것이 약속이다 — 그 일로 한숨을 쉬다면, 그녀의 권위는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쓰일 때에만 유효하다고 말한 셈이고, 그것은 당신이 원한다고 주장한 것의 정반대다.

그녀가 자기 식욕에 천천히 이르러야 할 수도 있음을 알아 두라. 많은 여자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 취향을 발견한다. 그 과정은 재촉될 수 없고 압력으로 아주 쉽게 망가진다.

그녀의 수고에 값하게 하라

이것은 그녀에게 공짜가 아니다. 책임을 지고, 안전을 배우고, 당신을 가까이 지켜보고, 자기 표준을 짊어지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조문 제 8 조가 그것을 그녀에게 매어 둔다. 이 약정이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녀의 삶은 그저 번거롭게만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고 오래갈 자격도 없다.

그러니 일하라. 그로 인해 눈에 띄게 나아지라. 기준을 지키라. 그녀가 청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라.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보는 만큼 가까이 그녀를 보라 — 그녀는 부리는 사람이 아니며,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안주인은 그렇게 말하기 훨씬 전에 다스리기를 그친다.

그녀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답이며, 이 전서는 세 군데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것은 협상의 첫 수도, 첫 제안도, 몇 달마다 말만 조금 바뀌 다시 꺼낼 것도 아니다. 거절을 밀어붙이는 일이야말로 당신 자리에 선 남자를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마음이 바뀌면 문은 열려 있다고 한 번 말하고, 그런 다음 정말로 놓아 두어도 된다. 많은 부부가 몇 해 뒤에 그녀의 경로로 이 대화에 돌아온다. 그것이 오래가는 판이다. 닳도록 밀려서 이른 부부는 하나도 없다.

정직하게 이름 붙이라

마지막으로, 가장 쓸모 있는 것.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청하는지 알고, 장치 이야기 대신 그것을 말하라. 당신이 참으로 청하는 것은 주로 아픔이 아니다. 다스려지고, 지켜봐지고, 무언가에 붙들리고, 알려지는 것이다 — 당신이 그 판단을 받아들일 유일한 사람에 의해. 그렇게 말하라. 더 참되고, 덜 놀랍고, 나머지 전부를 설명해 준다.

이것이 아픔에 대한 식욕이 아니라 그녀의 주목을 구하는 청임을 이해한 아내는 예라고 말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 말한 뒤에 즐기기도 훨씬 쉬워진다.

한 번, 남김없이 묻고, 그다음은 그녀가 정하게 하라. 그것이 전부다.

복종과 소유의 언약서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맺는 사사로운 언약 · 가혼의 격식을 따름
만 18 세 이상 성인 전용 · 두 사람의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자발로써

제 1 조 자격, 동의, 그리고 맑은 정신

이 언약은 만 18 세 이상의 성인 두 사람만이 맺을 수 있다. 두 사람은 서명하는 순간에 정신이 맑고, 판단이 자유로우며, 취기나 강요나 두려움 아래 있지 않음을 이로써 확인한다. 이 문서는 부부 사이의 사사로운 약정으로서, 법률 문서가 아니고,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어느 쪽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두 사람은 다음을 맹세한다. 서명은 어떤 압력이나 강제나 위협 없이 스스로의 뜻으로 하는 것이며, 모든 조문을 두 사람이 소리 내어 함께 읽었고, 동의란 살아 있는 것임을 안다. 이 문서는 영속을 말하나, 동의는 언제든지, 어느 쪽에서든, 멈출 수도 거둘 수도 있다. 미리 정한 한 마디 말, 한 가지 신호가 나오면 모든 훈육은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나무람 없이 멈춘다. 이 언약의 힘은 떠날 수 없음에 있지 않다. 오늘도 여기 머물기로 날마다 다시 택함에 있다.

제 2 조 복종의 전문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아내의 소유로서의 나의 자리를 정식으로 인정한다. 이 내어드림은 나약함이 아니라, 깊이 헤아린 끝의 전략적 선택이다. 내가 그녀를 집안의 권위, 곧 안주인으로 모신 것은, 내 생애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그녀의 절대한 권위가 내게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문밖에서 내가 어떤 직함과 권한을 지녔든, 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나는 다스림을 받는 자산이다. 나의 몸과 행실과 훈육에 대한 그녀의 권위는 온전하다. 이 문서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의 으뜸 강령이다.

제 3 조 정조와 무방비의 법

내 몸은 더는 내 것이 아니다. 나의 평상시 모습은 잠긴 정조 장치 안에 담긴 채, 의도된, 끊이지 않는 무방비 가운데 놓인다. 나는 안락과 방어와 해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열쇠는 오직 안주인 한 사람에게 속하며, 내 몸은 늘 절제되고, 매여 있고, 그녀의 훈육 앞에 언제나 열려 있다. 무방비는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봉헌이다. 그녀를 향한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날마다 몸으로 드리는 증거다.

제 4 조 훈육의 본뜻

훈육은 잔인함이 아니라 집안 질서의 근본이다. 아내의 손바닥이 내려앉는 순간, 그녀는 누가 이끌고 누가 따르는지를 내게 일깨운다. 몸이 튀고 숨이 흐트러지고 살갗이 달아올라도,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견뎌야 한다. 그것이 참된 훈육이다. 좋고 싫음은 내가 정하지 않으며, 그 집행에 나의 말은 없다. 그녀가 기뻐하시기에 나는 받아들인다.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이 집의 사랑의 매요, 이 집의 법이다.

제 5 조 소유의 표식과 밤의 문안

살갓에 남은 얼얼함은 아내의 손이 남긴 표식이요, 내가 그녀의 것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거스르면 맞는다. 머뭇거리면 맞는다. 무릎 위에 엎드린 나를 그저 보고 싶으시면, 그것만으로도 맞는다. 엉덩이에 피어오르는 붉은 기운은 그녀의 서명이며, 내가 길들여지고 순종함의 표다. 나아가 나는 예외 없이 밤의 문안을 드린다. 하루가 아무리 고되었어도, 앞선 벌이 아무리 무거웠어도, 저녁의 훈육에 이 몸을 올리기 전에는, 나의 하루는 끝을 허락받지 못한다.

제 6 조 근면의 표준과 교정

게으름, 미루기, 그리고 직업과 살림과 집안일에서의 어떠한 수준 저하도, 이 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나의 의욕과 집중은 이 집의 자산이다. 요구된 표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한계 장전》이 허락하는 안에서, 안주인이 고르신 즉각적이고 절도 있는 교정을 받는다. 나는 나의 태만의 값을 이 몸으로 치르기를 받아들인다. 교정이 끝나는 때는, 가르침이 뺏속까지 닿았다고 그녀가 여기시는 때뿐이다.

제 7 조 한계 장전

절대한 권위는 허술한 권위가 아니다. 이 언약에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서 한 권이 달려 있으니, 《한계 장전》이다. 그 안에 두 사람이 손수 적는다. 어떤 훈육을 받아들이는지, 그 상한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결코 하지 않는지, 모든 조문 위에 서는 정지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매질과 교정과 결박과 벌서기의 공을 다스리는 안전의 지식 일체를. 이 언약서는 《장전》 없이 서지 못한다. 《장전》이 두 사람의 소리 내어 읽음으로 채워지고 두 사람의 서명을 얻기 전에는, 아래의 어떤 서명도 효력이 없으며, 어떤 교정도 《장전》이 허락한 것을 넘지 못한다.

안주인은 스스로 이렇게 맹세한다. 《장전》을 예외 없이 지키고, 모든 교정 뒤에는 《장전》이 정한 대로 자산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그의 건강과 자국과 마음을, 제 보물을 아끼는 주인의 눈으로 지켜본다. 사후의 보살핌은 은혜가 아니라 그녀의 본분이다 — 견딤이 그의 본분이듯이. 《장전》이 한계를 줌할 때 그것은 그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 언약서가 절대를 말하고 《장전》이 한계를 말할 때는, 《장전》이 이긴다.

제 8 조 상생의 법 (안주인의 표준)

이 구조는 서로를 높임 위에 선다. 자산이 복종에 매이듯, 안주인은 그녀의 표준에 매인다. 그녀의 본분은 그의 집중을 버리고, 그의 자신감을 세우며, 바깥 무대에서는 흠 없는 품격과 기품으로 그의 곁에 서는 것이다. 그를 성공으로 밀어 올리되, 자신의 삶에서도 그 노력에 걸맞아야 한다. 자신의 탁월함을 버리는 날, 그녀는 자신이 다스리는 법도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그녀의 위엄은 그가 바깥에서 거두는 승리의 불씨다. 두 사람은 단 하나의 진실 아래 움직인다 — 자산이 이기는 날이, 곧 안주인이 이기는 날이다.

제 9 조 영속과 십년 재서약 대례

이 언약은 평생의 것이다. 그것을 품은 혼인과 같은 무게, 같은 엄숙함을 지니며, 혼인이 끝날 수 있는 방식으로만 — 깊이 헤아려, 맑은 정신으로, 두 사람이 함께; 결코 가벼이 아니하고, 결코 노여움 속에서

아니하며, 결코 한쪽의 침묵으로써가 아니라 — 끝날 수 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이 집에서 그 말은 빈말이 아니다. 선택은 이미 내려졌고, 우리는 그 위에 선다.

열 해에 한 번, 내어드림의 날 그 기념일에, 부부는 재서약 대례를 올린다. 이 언약 전문을 소리 내어 읽고, 그 값을 숨김없이 헤아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손수 적는다. 대례는 언약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며, 언약을 끝낼 힘도 없다 — 맹세는 재판받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드리는 봉헌이다. 영속의 값을, 열 해마다 한 번씩, 스스로의 선택으로 다시 치르는 일 — 언약이 관성이 아니라 선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한계 장전》은 맹세의 실무이므로 그 정한 바대로 해마다 살핀다. 한계는 언제든 어느 쪽이든 좁힐 수 있다. 넓히는 것은 오직 글로써, 두 사람이 함께.

맺음의 맹세

사내는 제 선택 위에, 제 말 위에, 제 행실 위에 선다. 내가 고개를 숙이는 이는 이 생에 오직 한 사람, 나의 아내, 그녀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내어드림을 받으심에 있어, 그에 값하는 사람이기를 스스로 맹세한다 — 오늘도, 이 언약이 서 있는 모든 날에도.

오직 서로만을 증인으로 삼아

남편(자산) 서명: _____

아내(안주인) 서명: _____

내어드림의 날: _____

가장 최근의 십년 재서약 대례: _____

《한계 장전》 작성·서명일: _____

정지어 (전문은 《한계 장전》에 기록): _____

만 18 세 이상 성인 전용. 두 사람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동의로써 맺음.

용어 풀이 — Translator's Notes

아래는 이 언약서를 옮기며 고른 말들과 그 문화적 뜻을 밝힌 것이다.

가훈(gahun) — The document's form. Korea's living tradition of framed family precepts — households still hang calligraphed family principles on the wall today. Of all four editions, the Korean reader is the one most likely to already own an object in this exact genre.

안주인(anjuin) — "Regulator." Literally "the inner master" — the traditional mistress-of-the-household whose authority over the domestic realm was complete. The word carries command, not decoration.

사랑의 매(sarang-ui mae) — "The rod of love" — the common Korean phrase for corrective discipline administered out of care. Article Four closes on it deliberately: what pleases her is this house's rod of love, and this house's law.

밤의 문안(bam-ui munan) — "The Nightly Routine." Munan is the Confucian ritual of formally presenting oneself to one's elders each morning and evening — daily, embodied deference. His evening discipline rendered as a rite Koreans already know by name.

별서기의 공(beolseogi-ui gong) — "The Sentinel." Beolseogi — standing punishment, holding position, arms raised — is a discipline virtually every Korean has known since childhood. The Sentinel required no invention in Korean; it required only elevation, so gong (功), the syllable of disciplined practice, is added.

십년 재서약 대례(sipnyeon jaeseoyak daerye) — "The Grand Renewal" — the great rite of re-vowing, every ten years, named in the register of court ceremony.

한계 장전(hangye jangjeon) — "The Schedule of Limits." Jangjeon — charter, codex — gives the safety document constitutional weight.

정지어(jeongjiewo) — "The halt word." A formal coinage — the word that stops. The community loanword 셰이프워드 (safe word) is universally understood and may be recorded in the Schedule instead.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geomeun meori papuri doedorok) — "Until death do us part." Literally "until black hair becomes white as scallion roots" — the traditional Korean wedding vow of lifelong marriage, and the loveliest of the four editions' permanence idioms.

자산(jasan) — "Asset." Direct equivalent, carrying the same estate-management register as the original.

배약과 재봉헌의 부칙

《복종과 소유의 언약서》 부칙 — 만 18 세 이상 성인 전용

하나 교정과 배약은 같은 것이 아니다

《장전》이 값을 매기는 것은 표준의 실패다. 게으른 오후, 닫혀 있던 저녁, 그르친 인사. 이는 과실이며 — 언약 안에서의 실수요, 언약의 여느 연장이 이를 마무리한다. 배약은 다른 급의 일이다. 배약은 체제 안의 실수가 아니라 체제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 맹세에 대한, 소유에 대한, 안주인이 다스림의 근거로 삼는 그 투명함에 대한 공격이다. 여기 따로 이름 붙여 두는 까닭은, 누구도 그것을 한낱 과실이었던 꾸미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셈이 여느 교정과 결코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둘 몸의 법

이 일은 자명했어야 한다. 여기 적는 까닭은, 바로 둘레의 세상이 자명한 것을 흥정거리로 삼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혼인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제 몸의 문을 열어 주었다 — 그의 몸은 그녀에게, 언제나. 그녀의 몸은 그에게, 언제나. 늘 분별과 은밀함 안에서. 한 사람에게 남김없이 준 것은, 그 한 조각도, 남에게 빌려줄 수 없다. 그의 몸은 그녀의 재산이요 그녀의 문이며, 오직 그녀 한 사람의 것이다. 다른 어떤 손도 그 위에 아무 권리가 없고, 다른 어떤 이도 그녀의 재산에서 그녀의 몫을 — 하물며 그 쾌락을 — 끌어낼 권리가 없다. 남의 손길을 허락함은 그녀의 것을 훔침이요, 그것을 구함은 맹세에 대한 반역이다. 이 일에 작은 판은 없다. 뿌리치지 않은 입맞춤 하나가 곧 배약이며, 그 너머는 죄에 죄를 얹은 배약이다.

셋 숨김은 두 번째 도둑질이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목은 흔히 그 일이 아니라 그 뒤의 침묵이다. 배약을 숨기는 남편은, 그녀의 재산이 무엇에 쓰였는지를 감춘 채 밤의 문안에 제 몸을 올린다 — 저녁마다, 이 언약 전체가 닫고 선 그 투명함을 위조하는 것이며, 숨긴 하루하루가 죄의 갱신이다. 안주인은 보이는 것만 다스릴 수 있다. 숨김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안주인의 눈을 가림은 언약의 기틀 그 자체를 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숨김은 그것이 감춘 일과 따로 세어지고, 더 비싸게 매겨진다. 스스로, 지체 없이 한 고백만이 이 부칙이 아는 단 하나의 정상이며, 들김은 정상이 아니다.

넷 셈함

배약은 벌을 받지 않는다. 셈함을 받는다. 셈함에는 네 마디가 있고, 차례로 행한다. 첫째, 남김없는 실토. 그녀의 캐물음 아래 전부를 아뢰다 — 어디서, 언제, 몇 번, 무슨 말이 오갔고, 무엇을 숨겼는지 — 그늘에 남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되풀이하여. 사실 하나라도 빛으로 남아 있는 동안, 셈함은 시작되지 못한다. 둘째, 한나절로 끝나지 않는 뒷감당. 길어지는 잠금, 거두어지는 은전, 살핌 아래의 표준 — 그 길이와 무게는 안주인이 《장전》 안에서 정하되, 여느 교정보다 작정하고 길게 한다. 상처가 여느 실수보다 깊었기 때문이다. 셋째, 봉인. 그녀가 고른 몸의 교정이, 《장전》 안에서, 그녀의 모든 훈육이 내려지는 그 방식으로 내려진다 — 권위로, 고요히, 캐물음을 마치고, 형을 이미 이룬 뒤에. 넷째, 재봉헌. 조문 전문을,

철을 벗어나, 소리 내어 읽고, 두 서명을 새로 적는다 — 맞은 것이 맹세였으므로, 상한 맹세는 그저 갇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바쳐지는 것이다.

다섯 이 법은 두 사람을 맨다

이 언약의 권위는 그녀의 것이나, 그 정절은 두 사람의 것이다. 그녀의 몸 또한 오직 그에게만 주어졌으며, 안주인의 배약은 그 지위로 하여 가볍지 않다 — 오히려 무겁다. 그녀야말로 온 구조가 기대는 표준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배약하면, 샘함은 갈래에서 같다. 남김없는 실토, 둘이 함께 정하는 오랜 뒷감당, 그리고 재봉헌 — 이 언약은 다스림 받는 이의 법과 옥좌의 법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자명했어야 할 것을 여기 적어 두니, 다시는 모호한 척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지침일 뿐. 만 18 세 이상, 자발한 성인 전용. 모든 것은 《한계 장전》과 정지어 아래 있다.

셈함의 실록

부칙 「배약과 재봉헌」에 딸린 한 사건 — 어느 부부의 마흔여덟 시간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 실록에 올리되, 이름은 감추노라. 교의가 아니요, 살아 행해진 교의의 본이니라. 만 18 세 이상을
위함이라.

한 사건을 실록에 올리는 까닭

이 전서의 문서들은 장전의 소리로 가르치노니, 원리요, 격식이요, 법이니라. 허나 부부는 장전의 소리 속에 살지 아니하며, 네 마디로 번호 매겨진 셈함이란, 산길을 내려오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림 속 떡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니라. 이제 적는 바는 이 도리를 사는 어느 부부의 실제 있었던 기록이니 — 그들은 어떤 책에도 기대지 아니하고 오직 본능으로 행하였으되, 그 행한 바가 이제 이 기록이 따르는 부칙의 마디마디에 거의 그대로 포개어지는 고로, 여기 실록에 올리노라. 이 기록은 일부러 본 구조의 밖에 두었으니, 담이 아니요 창이니라. 어느 부부든 조만간 부칙에 묻게 될 한 물음 — 셈함이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 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읽을지어다

배약

회사의 송별연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떠나는 여직원 하나가 그 남편에게 입을 맞추었느니라 — 그리고 그는 물러서지도, 별다른 기색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내는 그 순간을 마땅히 쓸 곳에 썼으니, 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실마리로서였느니라. 그는 그 밤으로 잠기었고, 이튿날 산길 산책에서의 캐물음이 실을 끝까지 뽑아내었도다. 여러 달 전, 같은 여인이, 통화 중인 그를 책상 밑에서 절정에 이르게 하였고, 아내의 기별 없는 방문이라는 우연으로만 끊기었으며, 매무새를 고친 뒤 이제껏 — 그 사이의 모든 밤의 문안을 지나며 — 숨겨져 왔느니라. 입맞춤은 둘째 죄요, 책상은 첫째 죄요, 밤마다 갱신된 숨김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죄였도다. 부칙의 조목으로 이르자면, 두 번째 도둑질의 온 무게를 짊어진, 죄에 죄를 얹은 배약이니라.

셈함, 마디를 따라

실토라. 그녀는 자리를 골랐으니, 인적 드문 산길, 사실상 둘만의 땅이었느니라. 거기서 그녀는 그의 바지를 열어 장치째 바깥바람에 드러내고 — 원예 장갑을 이미 한 손에 낀 채, 벌의 연장을 눈앞에 보이며 물었도다. 어디서. 언제. 정확히 무엇을. 그 밖에는. 온 실토가 그 캐물음 아래, 선 채로, 드러난 채로, 무엇이 내려지기 전에 다 아뢰어졌느니라. 캐물음이 선고에 앞섰으니 — 부칙이 명한 그대로, 사실 하나라도 빛으로 남은 동안은, 셈함은 열리지 못하느니라.

봉인이라. 그 자리에서 꺾은 생 썰기풀로, 오직 급소에만, 켜 여섯 대 — 좌우에 각 둘, 아래에 둘 — 몇 초 안에 내려지고, 풀은 버려지고, 산책은 다시 이어졌도다. 고요하고, 짧고, 끝났느니라. 권위요, 성미가 아니었으니 — 형은 이미 캐물음으로 일러졌고, 봉인은 다만 찍혔을 따름이니라. 그녀는 뒤를 위하여 소리쟁이 잎을 꺾었으니, 오랜 민간의 옛법이라. 허나 정직한 낮게 함은, 아래 경계에 이른 바와 같이, 서늘한 바깥바람 그 자체였으며 — 그것을 그녀는 이미 형기 안에 짜 넣어 두었더라.

한나절로 끝나지 않는 뒷감당이라. 산책 내내 그는 바깥바람에 드러난 채였으니 — 길손이 지나면 긴 옷옷이 내려져 가리고 끈은 손바닥에 감추이며, 길이 다시 둘만의 것이 되는 즉시 되돌려졌느니라. 산책하는 부부의 겉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잡을 데 없었으니, 셈함이 행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바깥 무대의 법도》가 지켜진 것이라. 그는 음낭 고리 꼭대기의 고에 걸린 끈으로 이끌려 걸었으니 — 제 정절의 기물 그것에 이끌려서라 — 제 몸에 손대는 일은 금하여졌고, 손을 뺀은 값은 바로 그 아파하는 자리에 맨손 한 대였느니라. 집에 이르러서는 그녀 눈에 보이고 제 손에는 닿지 않는 곳에 드러난 채 두어졌으며, 따가움이 제 길을 다 갈 때까지 납작한 장치 속에서 꼬박 마흔여덟 시간을 치렀도다 — 그 길이, 그의 경우, 소리쟁이 앞과 찬물로도 서른 시간 가까이였느니라. 뒷감당은 한나절을 이틀이나 넘겼으니 — 배약 급의 뒷감당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느니라.

남는 바라. 그 부부는 모든 것을 본능으로 행하였고, 저들 말로는 이 일은 이미 다했다 하는도다 — 그는 다시 하지 아니할 것이요, 둘 다 그것을 의심치 아니하느니라. 이 전서를 따라 행하는 부부라면 부칙의 넷째 마디를 더할 것이니, 철을 벗어나 조문 전문을 소리 내어 읽고, 두 서명을 새로 적는 일이라. 따가움은 살을 가라앉히고, 다시 적는 서명은 맹세를 가라앉히느니라.

췌기풀 그것에 관하여

그녀가 손을 뺀은 그 연장에는 이름이 있으니 — 췌기풀형이라 — 《장전》의 어느 연장보다 오랜, 기록된 내력을 지녔느니라. 로마의 민간 의술은 사내의 허리와 급소에 생 췌기풀을 대었으니, 페트로니우스의 글에 증언이 있고 플리니우스가 적은 췌기풀의 효험과도 맞아떨어지는도다 — 다만 그 뜻은 정반대였으니, 「식은」 기관을 데우고 몰아쳐 기력을 되찾게 하려 함이요, 훈육하려 함이 아니었느니라. 류머티즘과 저림에 몸을 췌기풀로 치는 통상의 법은 유럽 민간 의술 수백 년에 걸쳐 소상히 적혔으되, 급소에 쓴 일은 옛적에 증언이 있고 민간의 이어짐도 그럴듯하나, 옛 글은 어떤 시간도 분량도 적지 아니하였느니라 — 옛사람은 따가움에 시계를 대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의 앓이 보태는 것은 그 속내이니, 췌기풀의 털은 히스타민과 그 동무 되는 것들에 더하여 수산과 주석산을 찢러 넣고, 따가움이 길게 가는 공은 그 산들에 돌려지는도다. 여느 살에서는 타는 듯함이 몇 분에서 한두 시간, 예민함이 하루 넘게 간 기록이 있고, 음낭의 살에서는 — 앓고, 신경이 뻑뻑하며, 온기와 놀림과 움직임에 끊임없이 다시 붙는지라 — 그 긴 꼬리의 먼 끝이 예정된 결말이니, 바로 이 형기 속의 걸음과 착용이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 붙였느니라. 서른 시간은 예외가 아니요, 이치에 맞음이라. 췌기풀이 배약 급의 셈함에만 속하고 여느 돌림에 들지 않는 까닭이 이것이니 — 그 무거움은 꼭대기가 아니라 길이에 실렸고, 날로 세는 뒷감당은 같은 돈으로 세는 죄에만 갚아져야 하느니라.

걸림의 변식과, 어찌하여 매가 아닌가

같은 연장의 다듬어진 한 법을, 같은 부부의 그 뒤 행함에서 취하여, 배약 급에만 쓰도록 여기 적노라. 남편은 옷을 갖춘 채이니 — 바지를 입고, 장치는 막으로 감싸며, 열린 지퍼로 내어진 음낭 말고는 한 치의 살도 드러나지 않느니라. 옷 그 자체가 자리의 법을 집행하여, 딸린 모든 자리를 가리고, 오직 뜻한 그 과녁 하나만을 남기는도다. 그런 뒤 그는 끈에 이끌려, 안주인이 미리 살피 둔 췌기풀 무더기를 지나 걸게 되나니 — 과녁이 그 곁으로는 지나지 못하고 오직 그 가운데로만 지나야 하는, 알맞은 높이의 줄기들이 좁게 모인 어귀니라. 그는 제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 것이요, 걸고자 하지 아니할 것이라. 끈은, 그래도 나아가는 형이니라. 마다함은 판의 한 자락이로되 — 정지어는 현실이니, 풀숲 한가운데서라도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멎느니라. 계량에 정직할지니, 지나 걸음이 주는 것은 두드림이 아니라 끌림이라 — 줄기 하나하나가 그가 지날 때 살 위에 따가움의 줄을 긋나니, 한 어귀로 모인 몇 줄기는 같은 수의 잔 두드림보다 뚜렷이 무겁게 내려앉고, 꼬리도 기니라. 하여 어느 무더기든 첫 쓰임은,

그녀의 느린 걸음 아래 단 한 번의 지남으로 그치고, 이튿날까지 살핀 뒤라야 그 무더기에 더한 것을 맡길지니라. 그 뒤로 그것은 그녀의 뜰에 자라는, 이미 아는 연장이 되느니라. 걸음 수는 그날의 매질 수가 그러하였듯, 미리 세어 미리 이르느니라. 따가움은 풀이 주되, 썸은, 언제나 그녀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 연장이 애초에 있는 까닭은, 하나의 원리로 세워 둘 만하니라. 부부의 정분의 살림 안에 사는 연장은, 참 배신의 값을 매기지 못하느니라. 매도, 손바닥도, 장치도 — 언약은 모든 문서를 들여, 그로 하여금 이것들을 살가움으로, 소유로, 때로는 상으로까지 받도록 가르쳤도다. 참 배약에 그것들을 꺼내 들면, 형은 이르기도 전에 무르게 달고, 심하면 죄에 값을 치러 주는 풀이 되느니라. 췌기풀이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살림 밖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 이 전서 어디에도 그것을 정분의 것으로 적지 아니하였고, 그 무거움은 꼭대기가 아니라 길이에 실려 매질이 올라타는 물결에 오르지 못하며, 정분의 벌이 결코 가지 않는 여느 날의 삶 속으로 하루 넘게 그를 따라가느니라. 이 문서들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집은, 오직 뒷감당으로만 있는 연장을 적어도 하나는 돌지니 — 갈무리해 두고, 결코 놀이에 쓰지 아니하며, 결코 애태움의 돌림에 섞지 아니하여 — 그것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옮김 없이, 단 한 가지 뜻이 되게 할지이다. 이 집에서 그 연장은, 산비탈에 들풀로 자라고 있느니라.

경계하여 이르노라

췌기풀을 쓰기 전에는, 예외 없이, 이 경계를 읽을지이다.

췌기풀의 따가움은 무엇보다 히스타민을 찢러 넣음으로 일하느니라. 히스타민에 대한 예민함은 사람마다 하늘과 땅이요, 적지 않은 이가 뜻한 따가움을 훨씬 넘어 반응하는도다. 처음 쓰기 전에는 반드시 여느 살 — 팔뚝이나 허벅지 — 에 작게 시험하여 대고, 꼬박 하루를 기다릴지이다. 번져 가는 두드러기, 닿은 자리를 넘는 부기, 어지럼, 숨의 어떤 변화든, 그것은 정분이 아니라 급환이니 — 멈추고, 다스리고, 의원을 찾을지이다. 무거운 알레르기의 내력, 아나필락시스의 내력, 뚜렷한 히스타민 못 견딤이 있는 이는, 어느 자리에도, 어느 뜻으로도, 췌기풀을 일절 쓰지 말지이다.

오늘날의 항히스타민제는 두 길로 알아 둘 값어치가 있느니라. 일이 뜻보다 세게 번졌을 때 뒤에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이 일으키는 가려움과 두드러기와 부기를 눈에 띄게 눌러 주나니 — 《장전》에 췌기풀을 올린 집이라면 약장에 갖추어 둬서 슬기로우니라. 허나 정직히 적어 두노니, 항히스타민제가 다스리는 것은 히스타민의 길이요, 산이 끄는 긴 따가움이 아니니라. 안전그물이지, 끄는 단추가 아니니라 — 그리고 미리 무르게 하려 앞서 먹는 일은, 본 뜻을 꺾는 동시에 참 반응의 이른 징조를 가리나니, 그 징조야말로 보여야 할 단 하나의 것이니라.

자리의 법은 절대이니라. 요도 어귀에는 결코. 터지거나 성난 살에는 결코. 그 뒤 체액이 지날 자리에는 결코. 그리고 뜻하고 센 닿음을 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찬물과 바깥바람과 시간이 정직한 낮게 함이요, 소리쟁이 있는 옛법이자 위로니라. 그리고 이 전서의 모든 연장과 같이 — 정지어가 다스리고, 《장전》의 상한이 적용되며, 참 의학의 징후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군말 없이 끝내느니라.

교의는 가르치고, 실록은 믿게 하느니라. 이 책을 읽지 아니한 부부가, 그 가장 좋은 한 장을 썼도다.

지침일 뿐, 의원의 말이 아니니라. 만 18 세 이상, 자발한 성인을 위함이라.

끌어 걸리는 법식 보유

《셈함의 실록》 보유 — 만 18 세 이상을 위함이라. 앞장의 경계는 남김없이 여기에도 미치느니라.

끌어 걸리는 법식

위의 셈함은 썰기풀을 손에 들어 썼느니라. 꺾고, 세고, 대었도다. 같은 부부의 행함은, 더 무거운 형이나 뒷날의 셈함을 위한 둘째 법식을 일러 주나니 — 썰기풀은 땅에 자란 채로 두고, 죄지는 이를 그리로 끌어 걸리게 함이라. 그는 옷을 갖추어 입었느니라. 바지는 입은 채요, 열린 지퍼에 얹은 장치는 비닐막으로 남김없이 싸이고, 허벅지도, 사타구니의 골도, 고리의 선도 — 천과 막이 가리어, 옷 그 자체가 자리의 법을 지키게 하니, 오직 음낭 한 곳만이 드러나느니라. 멀리서 길손이 보면 그저 산책하는 옷 입은 사내일 뿐이라. 안주인은 미리 한 무더기를 살펴 두었으니 — 과녁의 높이로 자란 긴 줄기 예닐곱이 갈때기처럼 모여, 드러난 살이 겉으로 비껴가지 못하고 오직 그 사이를 지날 수밖에 없는 무더기라 — 끈으로 그를 그리로 이끄느니라. 그는 제가 저지른 바를 알 것ियो, 걷고 싶지 아니할 것이라. 그 머뭇거림도 형의 한 부분이니, 끈의 한 번 당김은 형이 나아감이니라. 그리고 정지어는, 이 전서의 어디서나 그러하듯,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오직 하나이니라.

눈금

대어진 줄기는 한 번의 닿음을 주되, 걸어 지나는 줄기는 쓸림을 주느니라 — 휘어지며, 지나는 살의 길이를 따라 쓸고, 그 줄을 따라 침을 놓는도다. 하여 갈때기로 모인 예닐곱은 같은 수의 두드림보다 뚜렷이 무겁게 내려앉으니, 덮음은 더 뽁뽁하고 꼬리는 더 길며, 허리 높이의 여문 줄기는 어린 풀보다 세게 쏘느니라. 이에 맞게 값을 매길지어다. 이는 배약 급의 연장ियो, 여느 돌림에는 결코 들지 아니하느니라. 어느 무더기든 첫 쓰임은 오직 한 차례 지남으로 하되, 그녀의 걸음으로 — 닿음이 스침에 머물고 결코 놀림이 되지 않을 만큼 느리게 — 행하고, 이튿날의 반응을 살핀 뒤에야 그 무더기에 두 번째를 허할지어다. 그 뒤로 그것은 그녀의 뜰에 자라는, 이미 아는 분량이 되느니라. 믿고 다시 쓸 수 있는, 눈금 있는 연장ियो, 고르기조차 할 수 있으니 — 베어 낸 썰기풀은 어리고 순하게 다시 나되, 세워 둔 무더기는 그 힘을 지키느니라.

이 죄에는 어찌 이 연장인가

이 부부의 행함에서 한 가지 이치를 터놓고 적어 두노니, 이 결글에서 가장 쓸모 있는 한 문장일지 모르느니라. 부부의 정분의 살림 안에 사는 연장으로는, 참 배신의 값을 매기지 못하느니라. 매도, 손바닥도, 장치도 — 이 전서는 다섯 권을 들여 그것들을 살가움으로, 소유로, 심지어 상으로 받으라 그를 가르쳤도다. 참된 배약에 그것들을 휘두르면, 이미 무르게 길들여진 채로 내려앉고, 심하게는 죄의 값이 아니라 죄의 샅이 되고 마느니라. 썰기풀이 쓸모 있는 까닭은 바로 그 살림 밖에 얹아 있음이니 — 이 전서 어디에도 그것을 정분에 물들인 곳이 없고, 그 무거움은 꼭대기가 아니라 길이에 실려 매질이 탈 수 있는 그 활동에 오르지 못하며, 정분의 벌이 결코 가지 않는 여느 날 속으로 하루 남짓 그를 따라가느니라. 이 언약 아래의 모든 집은, 오직 뒷감당으로만 있는 연장을 적어도 하나 지닐지어다 — 간직하고, 결코 가지고 놀지 아니하며, 애태움에 섞지 아니하여 —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움김 없이, 오직 한 가지만을 뜻하도록. 이 집에서는, 그것이 길가에 자라고 있느니라.

세 가지 썰기풀

집은 「썰기풀」을 한 가지 연장으로만 여길 것이 없느니라. 세 종이 눈금 있는 한 벌을 이루는도다. 애기썰기풀(우르티카 우렌스) — 날카로운 일격이라.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이름값은 이를 여느 썰기풀 가운데 당장의 물림이 가장 사나운 것이라 부르나니, 침털은 더 뻑뻑하고, 타오름은 급하며, 이름값으로는 꼬리가 짧다 하는도다 — 그 순간은 건디기 어렵고 틀림없어야 하되 자살이 이튿날 일해야 할 때의 선택이니라. 뜰과 목정밭에 흔히 자라니, 북녘 살림의 손 닿는 여느 연장이라.

나무썰기풀(라포르테아 카나덴시스) — 너른 화폭이라. 북미의 종이니, 침털이 줄기와 너른 잎의 양면에 실려, 닿음이 한 점이 아니라 판판히 감싸는 침으로 오는도다 — 뜰이 내놓을 수 있는, 매의 낮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 열이 고르고 미리 헤아려지며, 느닷없는 꼭대기가 없으니, 켜 봉인에 마땅하도다. 놀람보다 고른 덮음이 요긴한 곳이면, 이 신대륙의 선택이니라.

로마썰기풀(우르티카 필룰리페라) — 맨 윗금이라. 지중해가 본향이요, 옛 초목지가 유럽 썰기풀 가운데 침이 가장 사납다 이른 바로 그 종이니 — 군단이 제 몸을 버리려 북으로 씨를 지녔다 전해지는 그것이라. 안전한 썰기풀 족속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짐이니, 거둬들인 숨김 같은, 가장 무거운 죄에 죄를 얹은 배약에만 간직할지어다. 그 내력의 무게가, 그 씬을 절로 대례로 만드느니라.

두 가지 정직의 조목으로 이 갈래를 단노라. 첫째, 이 등급은 민간과 초목지의 이름값이요, 실험실의 잴이 아니니 — 포기도 철도 살도 저마다 다른지라, 종마다 제각기 새 연장으로 대할지어다. 제 시험 대기, 제 한 차례 첫 지남, 제 기록된 반응을 지니게 하라. 둘째, 절대적 윗금이라. 로마썰기풀 위로는, 영영, 아무것도 없느니라. 뉴질랜드의 나무썰기풀(우르티카 페록스)과 호주의 침나무(덴드로크니테)는 어른을 병원에 보내고 목숨을 앗은 바 있는 위험한 초목이니 — 연장이 아니요, 윗금 오르기가 아니요, 어느 연약의 어느 죄를 위해서도 아니니라. 그리고 종을 얹어 씬의 앞선 조건이니, 안주인이 이름을 확신으로 대지 못하는 줄기는 연장이 아니라, 잡초이니라.

세 가지 자세

형을 받은 사내는 세 가지 자세 가운데 하나로 썰기풀에 이르나니, 셋 다 교의이니라. 뉘우치는 자는 제 그림을 알고 스스로 걸어 지나가는도다 — 온 체계가 길러 내고자 하는 그 자세라. 빛으로 받는 형이요, 한 걸음마다의 다시 승낙이요, 이미 맞아떨어진 뜻과 판결이라. 그 기꺼움이 따가움을 덜지는 아니하되, 썸함을 가장 빨리 마치게 하며, 뒤에 그녀의 한마디를 얻을지도 모르느니라 — 가벼운 형이 아니라, 아는 사내답게 걸었다는 그 한마디를. 머뭇대는 자는 발이 굳어, 끈에 당겨져 끌려 지나가는도다 — 가장 흔한 자세요, 온전히 법 안이라. 살이 뒷감당을 꺼림은 사람의 일이요, 끈의 당김은 형의 나아감이요, 끄는 발은 정지어가 아니니라. 버티는 자는 대놓고 마다하여, 제 몫을 받도록 그 자리에 붙들어 매이는도다 — 풀끝이 드러난 과녁의 온 면에 대어지고, 남은 줄기는 다시 쓰겠다는 언질로 그의 눈앞에 세워 두나니, 기다림 그것마저 형에 징발되느니라.

셋째 자세는 오직 세 가지 밝은 금 위에서만 법 안이니, 이는 금이지 취향이 아니니라. 첫째, 그 자리의 마다함을 결박으로 넘는 일은, 미리, 계약의 자리에서, 《장전》 안에 정해져 있어야 하느니라 — 이는 합의된 불합의라,

정당한 격식이로되 첫 번에 즉흥으로 될 수는 결코 없느니라. 둘째, 정지어는 그가 매인 동안에도 살아 있고 몸으로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 《장전》이 신호를 모든 조문 위에 둔 까닭이 바로 이때이니라. 셋째, 이 격식 전체가 그 위에서 저울을 이루는 금이라. 버팀에는 값을 매겨도 되되, 거둠에는 영영 매기지 못하느니라. 법 안의 형과 다투는 일은 법 안에서 그의 값을 더할 수 있나니 — 버팀은 그 자체로 죄라, 셈에 더해지느니라. 허나 정지어가 입 밖에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멎으며, 그것을 씹은 영영 벌 받지 아니하고, 값 매겨지지 아니하고, 뒷날에 들추어지지 아니하느니라 — 부부가 제동을 벌하는 그 순간부터 제동은 없는 것이요, 그 뒤의 모든 것은 더는 훈육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집안의 세 가지 썰기풀

썰기풀은 한 가지 연장이 아니니라. 행함과 오랜 명성은 무게가 차오르는 세 가지를 가려내나니 — 층이 진 무기고요, 저마다 제 고장과 제 소임이 있느니라. 작은썰기풀(우르티카 우렌스), 곧 「날카로운 한 방」이라. 영국과 북녘의 뜰과 묵정밭에 나는 한해살이로, 여느 썰기풀보다 작으되 널리 전하는 명성으로는 그만큼 더 맵게 쏘느니라 — 뽕뽕한 털에, 타는 듯 즉각의 한 입이라. 그 소임은, 그 순간만은 또렷하되 이튿날 자살이 제 일을 해야 하는 셈함이니라. 나무썰기풀(라포르테아 카나덴시스), 곧 「너른 화폭」이라. 북미의 사촌으로, 침털이 줄기에 모이지 아니하고 너른 잎의 낮에 퍼졌으니 — 날카로운 한 점이라기보다 판판하게 감싸는 쏘임이요, 산 것 가운데 무거운 때에 가장 가까운 연장이라. 드러난 자리에 고르고 켜 덮음을 놓기에 마땅하니라. 그리고 로마썰기풀(우르티카 필롤리페라), 곧 「가장 무거운 층」이라. 지중해의 종으로, 옛적부터 유럽 일족 가운데 가장 사납다는 명성이니 — 로마 병사가 제 다리에 온기를 쳐 넣었다는 그 옛 전설의 바로 그 풀인지라, 그 의례의 무게는 빌린 것이 아니요 본디의 것이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죄를 얹은 배약에만 간직할지니 — 뒷감당이 한나절을 며칠이나 넘겨야 할 그때를 위함이라.

이 갈래의 정직한 가장자리

두 가지 참말이 이 무기고를 평안케 하느니라. 그 하나 — 위의 층 나눔은 명성과 행함에 기댄 것이요, 실험의 표에 기댄 것이 아니니라. 종과 종의 쏘임의 길이를 견준 정식 연구는 세상에 없으니, 「꼬리」와 「깊이」의 온갖 가림은 행하는 이의 헤아림이니라. 하여 새 종은, 새 무더기와 같이, 증명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분량이라. 먼저 시험하여 대고, 먼저 한 번 가볍게 쓰고, 이튿날을 살핀 뒤에야 그 층을 믿을지어다. 그 둘 — 그리고 이는 절대이니 — 안전한 일족은 여기서 끝나느니라. 남녘 바다와 더운 땅의 쏘는 겨레불이들 — 뉴질랜드의 옹가옹가와 호주의 김피김피를 으뜸으로 — 은 어떤 쓰임에서도, 어디서도, 영영, 갈래째 내쳐지느니라. 그것들은 참으로 흥한 풀이요, 그 쏘임은 주 단위로, 혹은 그보다 길게 세어나니, 어떤 언약도, 형도, 호기심도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세 가지 썰기풀이 집을 섬기고, 일족의 나머지는 들에 그대로 돌지어다.

침은 풀이 주되, 셈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니라.

지침일 뿐, 의원의 말이 아니니라. 만 18 세 이상, 자발한 성인을 위함이라.

한계 장전

《복종과 소유의 언약서》 딸림 문서

부부 두 사람만의 사사로운 장전 — 만 18 세 이상 성인 전용

이 장전을 쓰는 법

이 《장전》이 있는 까닭은, 훈육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격식이기 때문이다. 적힌 한계가 없는 관계는 더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 더 모호해질 뿐이며, 모호함이야말로 다침이 깃드는 자리다. 맑은 정신으로, 서두르지 않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모든 절을 소리 내어 채우라. 이 《장전》 안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수용'에 표시되지 않은 줄은 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며, 아예 적히지 않은 일은 의논을 거쳐 글로 더해지기 전까지 상에 오르지 않는다.

이 문서는 지침이며, 지침일 뿐이다. 의학적 조언도 법률 문서도 아니다. 이 장전이 섬기는 언약은 열 해마다 재서약 대례에서 새로워지고, 《장전》 자신은 맹세의 실무이므로 해마다 살펴 다시 서명하며, 어느 쪽의 한계가 바뀌면 그 즉시 고친다. 한계는 언제든, 어느 쪽이든, 의논 없이 그 자리에서 좁힐 수 있다. 넓히는 것은 오직 여기서, 글로써, 두 사람이 함께.

제 1 절 신호와 멈춤 권리

어떤 교정을 정하기보다 먼저, 멈춤의 제도를 정한다. 이 신호는 모든 조문, 모든 일과, 진행 중인 모든 벌 위에 선다. 안주인은 이를 그 즉시, 언짢은 기색 없이 지키기로 스스로 맹세한다. 멈춤은 결코 거역이 아니다.

정지어 (나오는 즉시 모든 것을 멈춘다): _____

완화어 (늦추라 · 가볍게 하라 · 살펴 물으라): _____

소리 없는 정지 신호 (말이 막힐 때를 위하여): _____

소리 없는 신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산의 입이 막히거나, 얼굴이 아래를 향하거나,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의 세기 아래 있을 때는 반드시 몸의 신호를 지닌다 — 손에 쥔 물건을 떨어뜨리기, 세 번 세계 두드리기, 주먹을 폼다 쥐기. 행하기 전에, 매번, 반드시 시험하라. 신호를 낼 수 없다면, 신호를 막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

살펴 물음에 관하여. 새로운 일, 새로운 도구, 어느 때보다 센 자리에서는 안주인이 상태를 묻고, 자산은 숨김없이 답한다. 강해 보이려고 고통을 감추는 자산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 두 사람을 지키는 그 제도를 제 손으로 허무는 것이다.

제 2 절 건강의 알림

몸이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부끄러움 없이 다 밝힌다. 안주인이 참으로 알지 못하는 몸에 맞춘 훈육은 어림짐작이며, 어림짐작은 해를 낳는다.

심장 · 혈압 · 혈행의 병: _____

신경 이상, 저림, 옛 상처 (허리 · 꼬리뼈 · 손목 · 아랫도리): _____

복용 중인 약 (특히 항응고제 — 명의 성질을 바꾼다): _____

피부병, 출혈이나 멍이 잘 드는 체질: _____

안주인이 알아야 할 마음의 상처나 방아쇠: _____

그 밖의 관련 사항: _____

제 3 절 매질의 훈육 (손매와 판매)

도구 하나하나, 조건 하나하나에 정직하게 표하라. '상한' 칸에는 그 항목에 영영 허락되는 최대 세기를, 하나(의례적인, 상징적인 따끔함)에서 다섯(자산이 받아들이는 가장 무거운 교정)까지로 적는다. 안주인은 언제나 상한 아래 머물 수 있다. 상한을 넘는 일은, 영영 없다.

도구

도구	수용	조건부	금지	상한(1-5)
손바닥	☐	☐	☐	
가벼운 판 / 가죽 패들	☐	☐	☐	
무거운 판	☐	☐	☐	
허리띠	☐	☐	☐	
회초리 / 가는 매	☐	☐	☐	
나무 주걱 / 살림 도구	☐	☐	☐	
기타 (적기): _____	☐	☐	☐	

맞아도 되는 자리 — 함께 읽으라

매질은 살과 근육이 두터운 자리에만 속한다. 엉덩이 아래쪽 등근 데와 허벅지 뒤 위쪽이다. 이 자리들은 힘을 받아낸다. 다음 자리는 어떤 세기로도,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치지 않는다. 척추, 꼬리뼈, 허리와 콩팥, 목과 머리 골반뼈, 오금, 그리고 모든 관절. 이것은 취향이나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해부의 문제다. 이 자리를 치면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낫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매질의 조건

무거운 도구 앞의 데움은 필수다. 손바닥이나 가벼운 매로 시작해 몸을 차츰 올리고, 피를 살갗 겉으로 불러 조직을 준비시킨다. 찬 살 위의 무거운 판은, 데운 살 위의 같은 판이 주지 않는 상처를 준다. 살갗이 터지거나, 명이 이상하게 빨리 번지거나, 자산이 날카롭고 전기 같고 뻘치는 아픔을 말하면 그 즉시 멈춘다 — 그것은 신경의 아픔이며, 바른 훈육의 깊고 묵직한 육신거림과는 다른 것이다. 안주인은 그 차이를 배우고, 살핀다.

매질 훈육 한 번의 최장 시간: _____

자국 (남겨도 되는가 · 며칠까지 · 보이는 자리는): _____

제 4 절 급소의 교정

《언약서》는 집중과 근면의 허물을 바로잡는 길로, 절도 있는 급소의 교정을 든다. 이 훈육이 몸의 가장 여린 곳에 닿는 만큼, 적힌 한계가 가장 무겁고 즉흥이 가장 용서받지 못하는 절이 바로 이 절이다. 모든 것은 미리 정한다. 그 자리에서 세기를 올리는 일은, 영영 없다.

정해 둔 교정

교정	수용	조건부	금지	상한(1-5)
손바닥으로 치기	☐	☐	☐	
가벼운 판으로 박자 있게 치기	☐	☐	☐	
무거운 판으로 치기	☐	☐	☐	
손으로 쥐기 / 누르기	☐	☐	☐	
손가락 튕기기 / 가볍게 두드리기	☐	☐	☐	
기타 (적기): _____	☐	☐	☐	

안전의 지식 — 해마다 살필 때 함께 읽으라

급소는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힘보다, 차근한, 박자 있는, 누르는 감각을 훨씬 잘 받아낸다. 언제나 천천히 쌓으라. 안주인은 모든 교정을 상한보다 한참 아래에서 시작해, 보며, 들으며, 뜻을 가지고 올린다. 갑작스러운 온 힘의 타격이야말로 파열과 오랜 상처의 까닭이며, 이 쪽에 적힌 어떤 상한도 그것에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 즉시 멈추고 다시 하지 않는다. 메스꺼움과 어지러움(몸이 참으로 지나쳤다는 표이지, 이 악물고 버틸 나약함의 이야기가 아니다), 친 뒤에도 가시지 않는 날카로운 아픔, 부어오름, 이상한 색 변화, 아랫배로 뻗치는 아픔. 붓기나 심한 아픔이 한 시간을 넘기면, 체면을 접고 병원에 가라 — 진료실은 못 본 것이 없고, 체면은 기능을 잃을 값으로는 너무 험하다. 이 절의 사후 살핌은 그날 밤 한 번, 이튿날 아침 다시 한 번.

급소 교정의 전체 상한 (1-5): _____

한 번 교정의 최장 시간: _____

이 절 안의 금지 (수수하게 적으라): _____

제 5 절 결박, 수갑, 안전

이 언약의 결박은 첫째로 안전 장비요, 상징은 둘째다. 내려오는 판의 길목에 반사로 뺀어 든 손은, 엉덩이는 준비되어 있었고 손은 아니었던 그 힘을 받는다 — 매를 막다 부러진 손가락은 고전적이고도 온전히 막을 수 있는 다침이다. 맞는 중의 움찔거림, 뒤틀림, 내뺄기는, 받아낼 자리를 길목에서 치우고 받아내지 못할 자리를 그리로 들이미는 짓이다. 그러므로 몸을 붙드는 것은 교정을 반드시 이루는 법일 뿐 아니라, 교정의 겨냥을 정하는 법이다. 결박에 동의함은, 참으로, 제 반사로부터 지켜지는 데에 동의함이다.

그리고 또 한 겹의 이치가 있으니, 결박이 이 언약의 친밀함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복판에 앉는 까닭이 이것이다. 몸의 반사를 셈에서 빼면, 모든 것이 깊어진다. 묶이지 않은 자산은 제 움찔거림을 다스리는 데 저의 일부를 쓴다 — 힘을 주고, 미리 재고, 의지로 자세를 붙든다. 묶인 자산은 그 노역에서 통째로 풀려난다. 머무를 만큼 강할 필요가 그에게는 없다. 수갑이 그를 대신해 머문다. 남는 것은 순수한 받아들임이다. 온전한 무방비가, 정직하게 내어지고, 안전하게 받쳐진다 — 이 도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짙은 믿음의 꼴이다. 아무것도 버티지 않기에 교정은 더 깊이 닿고, 반사로는 무를 수 없기에 내어드림은 더 온전해진다 — 무를 수 있는 것은 정지어뿐이며, 결박은 그 신호를 결코 앗아가서는 안 된다. 결박을 가장 잘 아는 부부들이 그것을 '간힘'이 아니라 '안김'이라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해 둔 결박

결박	수용	조건부	금지	상한(1-5)
손목 수갑 (부드러운 / 덧댄)	☐	☐	☐	
발목 수갑	☐	☐	☐	
두 손목을 등 뒤로	☐	☐	☐	
손목을 가구 / 고정점에	☐	☐	☐	
무릎 위, 두 손 잡힌 채	☐	☐	☐	
온몸 고정 (벤치 / 침대)	☐	☐	☐	
기타 (적기): _____	☐	☐	☐	

결박의 안전 — 흥정 없음

묶인 사람을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한순간도, 문을 열러도, 전화를 받으려도 — 안주인의 곁에 있음이 곧 안전장치다. 혈행은 자주 살핀다. 수갑 밑으로 손가락 둘이 들어가야 하고, 손발의 저림·차가움·색 변화가 보이면 교정 도중이라도 그 즉시 자세를 바꾸거나 푼다. 손목 신경의 눌림은 소리 없이, 빠르게 해를 끼친다. 빠른 풀림을 늘 갇춘다. 손 닿는 곳의 열쇠, 딸깍 풀리는 수갑, 줄을 자를 가위. 안주인이 삼십 초 안에 자산을 풀 수 없다면, 그 결박은 잘못된 것이다. 목에는 아무것도 매지 않으며, 어떤 결박도 숨을 막아서는 안 된다.

결박의 최장 연속 시간: _____

아예 뺄 자세: _____

제 6 절 벌서기의 공

벌서기의 공은 멈춤의 훈육이다. 자산은 명받은 자세 — 꿇기, 서기, 드리기, 혹은 든 것을 든 채 버티기 — 를 안주인이 정한 시간 동안 지킨다. 그 이치는 결박과 같다. 때로는 움직임이 멈춤보다 위험하며, 불편 아래에서

자세를 지키는 힘은 단련인 동시에 보호다. 그러나 멈춤에는 멈춤의 생리가 있으니, 안주인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벌서기의 안전

서서 무릎을 곧게 잡으면 쓰러진다 — 자산의 무릎에는 늘 한 톨의 굽힘을 남긴다. 쓰러진 벌서기는 옳게 훈육된 것이 아니라 잘못 세워진 것이다. 몇 분을 넘기는 꿇기에는 무릎 밑에 반드시 무엇을 깔다. 맨바닥의 맨 무릎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 채 관절만 상하게 한다. 들려진 무게는 관절을 바로 하여 들며 결코 잡그지 않고, 자세가 무너지는 순간 내려놓게 한다 — 떨림은 예상 안이고 허락 안이나, 짜임을 무너뜨리는 떨림은 그 버팀의 끝이다. 안주인은 창백함, 흔들림, 풀린 눈을 살피, 몸이 그를 대신해 끝내기 전에, 손수 끝낸다.

벌서기에 쓰는 자세: _____

자세마다의 최장 시간: _____

들게 하는 것 / 무게, 그리고 그 상한: _____

제 7 절 사후의 보살핌

모든 교정은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제 것이 된 몸에 안주인이 손을 얹고, 하나하나 살피는 것으로. 살갓을 살피고 물을 주고, 온기를 주고, 자산을 그녀 곁에서 내려놓게 한다 — 혼자 추스르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훈육 뒤, 달아오름이 빠져나가면 몸은 무겁게 가라앉는다. 몇 시간 뒤일 수도, 이튿날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은 그 가라앉음을 함께 살피고, 그것을 일상의 끊임이 아니라 교정의 한 부분으로 다룬다. 사후의 보살핌은 그 자리에 남기는 안주인의 서명이다 — 자국이 그러하듯이.

교정 뒤, 자산에게 필요한 것: _____

교정 뒤, 안주인에게 필요한 것: _____

제 8 절 늘 지키는 법

취기, 탈진, 참 병 아래에서는 훈육하지 않는다 — 가늠하지 못하는 몸은 가늠받는 데 동의할 수 없다. 행하는 도중에 새 도구, 새 자세, 새 교정을 들이지 않는다. 새로운 일은 먼저 여기로 와, 글이 되어, 대낮에 정해진다. 노여움은 결코 훈육하는 손이 아니다. 안주인은 권위로 바로잡지, 성미로 바로잡지 않는다. 그녀가 정말로 노했다면, 교정은 노여움이 가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이 쪽에 한 번 금지로 적힌 일은, 두 번 다시 청하지 않는다.

안주인의 재량

이 《장전》은 두 사람이 소리 내어 함께 채운 것이며, 두 사람을 함께 맨다. 그러나 그 움직이는 법에는 한 치의 모호함도 없어야 한다. 이 몇 쪽에 적힌 모든 경계 안에서, 마지막 말은 나의 아내에게, 오직 그녀에게 속한다. 교정이 언제 오는지, 어떤 꼴을 하는지, 얼마나 가는지, 정한 상한 안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 정하는 이는 그녀다. 이 결정들에 나의 표는 없다. 나의 말은 서명하던 때 이미 다했고, 그녀의 말은 날마다 이어진다.

또한 이 《장전》은 그녀를 매는 줄이 아니라, 그녀의 지침이요 그녀의 지도다 — 안주인의 자리가 그녀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도구와 훈육이 그녀의 것인지, 그녀의 소유가 어떤 보살핌의 수준을 요구하는지를 또렷이 적은 기록이다. 제 손안의 것을 낱알이 아는 안주인은 머뭇거림 없이, 확신으로 명한다. 이 몇 쪽이 있는 까닭은, 그녀가 영영 짐작하지 않아도 되게, 내가 영영 헤매지 않아도 되게 함이다. 한계는 두 사람의 것. 그 안의 모든 것은, 그녀의 것.

이 장전의 채택

우리 두 사람은 이 《장전》을 함께, 소리 내어, 맑은 정신으로, 서두르지 않고 채웠다. 두 사람 모두 만 18세를 넘었다. 우리는 안다. 이 한계가 언약을 매고, 정지어가 모든 조문 위에 서며, 이 《장전》이 해마다 살피져 — 고쳐지고 다시 서명되어 — 언약이 서 있는 동안 열 해마다의 재서약 대례로 이어져 감을.

남편(자산) 서명: _____

아내(안주인) 서명: _____

날짜: _____

다음 연례 점검일: _____

지침일 뿐. 의학적·법률적 조언 아님. 만 18 세 이상, 자발한 성인 전용.

부록 1 장치의 손질

날마다 몸에 붙는 강철은 날마다 손질되어야 하며, 그 손질 자체가 이 집의 한 의례다. 아래의 법은 쓸림도 혈음도 없이 몇 주의 끊임없는 착용을 견뎌낸 것으로, 잠근 채로 행한다 — 장치는 벗기지 않는다. 이 법에는 금속 장치가 가장 알맞다. 강철은 찬 기운을 제가 감싼 살갓까지 곧장 전하고, 실리콘과 달리 자극이 깃들 구멍이 없다.

담그는 법. 찬물 일 리터에 얼음 두세 조각을 넣어 대략 섭씨 4도에서 6도로 만든다 — 얼음은 물을 식히기 위한 것이며, 결코 살에 바로 대지 않는다. 첨가물 없는 깨끗한 미네랄 소금(켈트 소금이 좋다. 요는 요오드와 고결방지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둘은 어린 살갓을 자극할 수 있다)을 두 티스푼 푼다. 장치와 급소를 함께 담가 꼬박 5분. 소금물은 손이 닿지 못하는 모든 면을 씻는다 — 고리 밑, 관 속, 닿는 자리 하나하나 — 찬 기운은 살갓을 가라앉혀, 붓기가 혈음이 되기 전에 물린다. 하루 한 번이면 족하다. 더운 철, 고된 착용, 뜨겁게 보내는 한 주에는 하루 서너 번까지 늘려도 좋다.

담근 뒤에는 매번, 맹물 찬물로 헹구고, 입기 전에 남김없이 말린다. 고리 밑에 말라붙은 소금기는 그 자체로 자극이 되고, 간헐 습기는 강철이 낼 수 있는 어떤 쓸림보다 많은 쓸림을 낸다. 지킬 표. 찬 기운의 당연한 저릿함을 넘는 저릿, 분홍이 아니라 하양으로 바뀌는 살빛은 담금을 일찍 끝낸다 — 5분 안에는 둘 다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법 위에 서는 두 가지 규칙. 안주인은 제 재량으로, 여느 돌림 속에 정기적인 열고 살피기를 남겨 둔다 — 담금은 혈음을 막지만, 혈음이 이는 그날의 첫 붉은 자국을 보는 것은 맨눈뿐이다. 그리고 살갓이 터진 곳이 있으면, 다 나을 때까지 열어 둔다. 예외 없이. 상처 위의 장치는, 이틀 일을 두 주 일로 만든다.

부록 2 친밀함의 도구로서의 장치

이 기물을 자물쇠로만 본다면, 얕게 본 것이다. 장치는 이 집이 지닌 가장 친밀한 도구이며, 안주인의 손안에서 그것은 잠기지 않은 결혼이 좀처럼 다시 짓지 못하는 것을 이룬다. 남편으로 하여금 그녀를 원하게 하는 법 — 쉽지는 않, 어쩔 도리 없이, 날로 더 깊이 — 그리고 원함이 언제 얻음이 되는지는, 오직 그녀 한 사람이 정한다.

욕망의 썸은 단순하고 가차 없다. 잠기지 않은 사내의 욕망은 산과 골로 오간다. 채워짐이 그를 처음으로 되돌리고, 오랜 결혼의 닳음이 나머지를 마저 한다. 잠긴 사내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녀를 향한 눈길 하나, 스치는 살결 하나, 곁에서 지새는 밤 하나가 모두 지난밤 위에 쌓이고, 강철은 풀림이 되었을 것을 남김없이 쌓임으로 바꾼다. 그녀는 말 그대로 그의 세상의 단 하나가 된다 — 그리고 그 증표를, 그녀는 목의 사슬에 걸고 다닌다. 그의 눈에 날마다 보일 만큼 가까이, 그의 손에는 영영 닿지 않게. 살에 닿게 걸린 열쇠는 보관이 아니다. 무대이며, 하루의 모든 시간, 그에게 일하고 있다.

애타움은 이 안에서 그녀의 숨씨이며, 《장전》은 그것을 하나의 훈육으로 떼땀이 이름 붙인다. 강철에 붙여 움직이는 그녀의 몸, 그 안에서 팽팽해진 것을 가늠하는 그녀의 손, 마음 내키는 대로 주었다 거두는 그녀의 가까움 — 그를 애원의 벼랑 끝까지 이르게 하고, 열어 달라는, 증명하게 해 달라는, 그녀를 느끼게 해 달라는 청을 들은 다음 — 웃음을 머금은, 서두르지 않는, 못 박는 '아니'로 답한다. 그 '아니'는 물리침이 아니다.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짙은 마음 씀이며, 두 사람 다 그것을 안다. 그의 온 세상은 그녀 하나로 좁아지고, 그는 무엇이든 하려 들며,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제 몫의 것을 누린다. 이렇게 보내는 한 주 — 밤마다 장치에 기대어 그녀의 즐거움이 취해지고, 그는 섬기고 팽팽해지며, 기물은 부록 1의 법대로 아침저녁 담가지는 한 주 — 는, 몸을 쉬지 않은 채로, 몸 쉬기가 자유로운 대부분의 결혼보다 뜨겁게 타는 한 주다.

그리고 그녀가 정했을 때 — 그가 빌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정했을 때 — 풀림이 온다. 그 뒤는 여기 그릴 것 없고, 두 사람이 알아차릴 한 가지만 짙는다. 그 세기는 한 주가 쌓은 전부와 꼭 맞먹고, 그 기쁨은 두 사람의 것이다.

그녀가 지은 것이기에. 이렇게 행한 절제는 친밀함의 없음이 아니라, 친밀함의 복리다 — 그리고 장치의 이 쓰임을 배운 부부는 마침내 깨닫는다. 자물쇠는 두 사람을 갈라놓은 적이 없다. 두 사람을 한데로 밀어붙이던 그 손이었다.

두 가지 타이름으로 이 부록을 닫는다. 뜨거운 한 주 동안 손질의 법은 선택이 아니다 — 채액과 끊임없는 착용이야말로 소금물 담금이 있는 까닭 그 자체이니, 아침저녁의 담금은 그대로 의례의 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안주인은 여느 때처럼, 절제의 빠근함 — 그것이 본뜻이다 — 과 참 아픔·붓기·상함을 가려 살피며, 뒤의 것이 보이면 그 주는 일찍 끝난다. 군말 없이. 이 집의 가장 달콤한 훈육도, 《장전》 아래 있다.

한계 장전

부록 1

날마다의 장부와 기물의 법

《복종과 소유의 언약서》의 벗 — 만 18 세 이상 성인 전용

1. 근면의 장부

저녁마다 자산은 그날의 집안 성과와 몸의 관리와 태도에 관한 열 가지 감사를 받는다. 안주인이 한 문항씩 소리 내어 읽고 자산은 넷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정직하게 답한다. 장부는 형식이 아니며 사후 흥정도 없다 — 답한 것이 곧 점수다.

점수

답	점수	기입
가. 예. 기준으로 온전히 마쳤다.	5	
나. 바뻐다. 아직 하는 중이다.	10	
다. 남을 기다렸다. 외부의 지연.	15	
라. 아니오. 시도하지 않았다. 게으름.	20	

결과

총점이 교정을 정하며, 뒤로 내려진다. 총점이 곧 매의 수이고, 아래는 50, 위는 200 이다. 총점이 100 에 이르면 회초리가 더해진다 — 100 을 넘는 5 점마다 한 대. 열 문항 모두 라인 완전한 실패는 셈만으로 매 200 과 회초리 20 을 돌려준다.

셈 위에 이 집의 회초리 단단한 천장이 선다. 50 대이며, 어떤 저녁도 이를 넘지 못한다 — 격상으로도, 재량으로도, 나쁜 한 주의 누적으로도. 공식은 20 에 달고, 벽은 50 에 서며, 그 사이는 오직 안주인의 판단에 속한다.

아래 한계가 있는 것은 이 의식이 공과를 묻지 않고 밤마다 행해지기 때문이며, 위 한계가 있는 것은 최악의 하루조차 알려진 양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묻기 전에 자기 저녁을 셈할 수 있어야 한다. 기분이 아니라 장부인 까닭이 그것이다.

열 가지 물음

번	물음	점수
1	오늘 맡겨진 집안일과 날마다의 임무를 모두 좋은 기준으로 마쳤는가?	
2	정해진 식사와 법과 단식 시간을 어김없이 지켰는가?	
3	필요한 심부름, 몸 쓰는 일, 기계의 손질을 모두 처리했는가?	
4	제때 일어나 하루 내내 생산적인 집중을 유지했는가?	
5	지시를 한 번에 들었는가, 두 번 말하게 하지 않았는가?	
6	맡은 일에 미루거나 불평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기꺼운 태도를 지녔는가?	
7	내가 말하기 전에 가족의 실제적·일정상의 필요를 미리 헤아렸는가?	
8	일하는 자리와 욕실을 포함해 네 주변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했는가?	
9	끼니와 마실 것과 필요한 편의를 제때 마련할 시간을 냈는가?	
10	집에서, 내 곁에서 보낸 하루 전체를 볼 때 유능하고 헌신적인 반력으로 움직였는가, 아니면 날이 서고 쉬이 화를 냈는가?	
	오늘 밤 합계	

2. 본분의 장부

또 하나의 감사가 그의 직접적인 섬김, 간헐 아래에서의 자세,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것의 관리를 다스린다. 사정 탓이라 우길 수 없는 본분이므로 더 촘촘히 매긴다.

점수

답	점수	기입
가. 최상. 기준을 넘었다.	1	
나. 합격. 기준을 채웠다.	2	
다. 미흡. 일깨워 주어야 했다.	4	
라. 불이행. 하지 않았다.	6	

결과

총점이 곧 시행되는 헤아린 교정의 수이며, 아래는 10, 위는 60 이다. 《장전》이 그 도구에 정한 대로 — 합의한 세기보다 한참 아래에서 시작해 뜻을 가지고 올리며, 결코 힘으로 열지 않는다.

열 가지 물음

번	물음	점수
1	몸을 깨끗이 하고 내가 요구하는 그대로 갖추어 보였는가?	
2	오늘 기물에 필요한 세척과 손질을 마쳤는가?	
3	간헐 있음의 답답함과 쑥심을 토라짐이나 나쁜 태도 없이 견뎠는가?	
4	내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받았을 때 온전히 내게 마음을 두었는가, 다정하고 조심스러웠는가, 거칠었는가?	
5	오늘 내게 말할 때마다 존중과 말투를 지켰는가?	
6	일을 명받았을 때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행했는가?	
7	오늘 내게 온전히 투명했는가, 생각도 짜증도 흐트러진 관심도 감추지 않았는가?	
8	오늘 네 있음을 온전히 내어놓았는가,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것에 빠져 있었는가?	
9	오늘 나와 가족을 세심히 살피고, 나와 아이들이 편하도록 태도를 고쳤는가?	
10	오늘 네 행동이 우리가 네 우주의 중심임을 의심 없이 증명했는가?	
	오늘 밤 합계	

3. 기물, 해제, 그리고 드러냄

절대적 소유

기물과 그 안의 몸은 온전히 안주인에게 속한다. 그는 볼 수 있다. 명받지 않는 한 손대거나 고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며, 그의 지위는 지키는 자의 지위일 뿐이다.

해제

자물쇠는 오직 세 경우에만 열린다. 아이를 구하는 때, 부록 1이 요구하는 청결과 깊은 손질을 위하여, 그리고 안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그 묻지 않는 재량으로. 네 번째 경우는 없고, 청원도 없다.

달금과 애태움

그녀는 원하는 만큼 오래 잠가 두고, 원하는 만큼 애태우고, 원하는 만큼 새어 나오게 해도 된다. 집 안에서 벗은 채로 다니게 하고, 자기 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다루어도 된다. 집 안에서의 드러냄은 권장된다. 몸은 옷에 조이지 않을 때 더 잘 숨 쉬고, 늘 드러나 있음이 그의 처지를 굳힌다.

문 밖에서의 분별

집 안에서 예사인 것이 밖에서는 예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 수 있는 곳에서의 드러냄은 — 차창 너머를 포함하여 — 대부분의 법역에서 실제 법적 결과를 낳으며, 부부 사이의 합의는 낯선 이의 신고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담 밖은 《바깥 무대의 법도》가 다스린다. 보이지 않는 뼈대, 볼 것은 없음. 이동 중 드러낼 때는 가리개가 늘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하고, 차가 움직이는 동안 손대지 않으며, 규칙은 그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4. 도구와 그 돌림

어떤 도구가 그 수를 지느냐는 수 자체만큼 중요하다. 나무는 날카롭고 한 점에 모인 따가움을 주며 퍼짐이 적다. 가죽은 같은 힘을 더 넓은 면에 나누어 무는 대신 열을 쌓는다. 긴 수를 전부 나무로 치르는 것은 같은 수를 가죽으로 치르는 것과 전혀 다르고 훨씬 무거운 사건이다. 장부가 무어라 말하든.

한 저녁 안에서

입증된 순서는 날카로운 것이 먼저, 넓은 것이 나중이다. 살갓이 아직 새롭고 모인 힘을 받아낼 수 있을 때 나무 매를, 온기가 오른 뒤에는 나머지 대부분을 가죽으로. 나무 오십, 이어 가죽 백오십은 잘 짜인 한 저녁이다. 나무 이백은 같은 선고가 아니며 결코 같은 것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한 주 안에서

돌리라. 도구가 다르면 조직에 실리는 짐도 다르고, 번갈아 쓰면 한 종류의 짐이 회복하는 동안 다른 종류가 수를 진다 — 밤마다의 실천이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살아남느냐를 가르는 가장 큰 한 가지가 이것이다. 대부분의 밤은 가죽, 몇 밤은 나무, 나머지는 더 가벼운 것으로 짜인 한 주는 무기한 이어질 수 있으나, 변화 없는 한 주는 그러지 못한다.

회초리는 돌림 밖에 선다

회초리는 어떤 돌림에도 들지 않는다. 달력이 아니라 점수가 불러내는 격상의 도구이며,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다른 급임을 안다. 크게 아프도록 만들어졌고, 쉽게 자국을 남기며, 이 집의 어떤 것보다 쉽게 살갓을 터뜨린다. 살갓이 터진 밤에는 그 밤의 교정이 거기서 끝난다. 터진 살갓은 멍에는 없는 감염의 위험을 지니므로, 씻기고, 조이는 것으로 덮지 않으며, 시간이 아니라 날로 헤아려 주어야 한다.

5. 이 숫자들에 관하여

이 부록의 모든 것은 기준선이지 처방이 아니다. 여기 적힌 수치는 서로의 몸을 아는 두 사람이 세월을 두고 이룬 한 가정의 확립된 실천을 그린 것이다 — 그리고 여러 해 길들여진 남자에게 예사인 수는 세 주째의 남자를 다치게 한다. 이 수들을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으로 다루라. 그 일부에서 시작해 몇 달에 걸쳐 쌓고, 종이가 아니라 몸이 걸음을 정하게 하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부도 반대 방향으로 이 천장에 매이지 않는다. 다른 집이 더 높게 정한다면 그것은 그 집의 일이다. 이것은 안내서이며 그 이상이 아니다. 다만 그 거래를 분명히 알아 두라. 수가 오르면 위험도 오르고, 책임도 함께 오른다. 기준선 위의 모든 수치는 두 사람이 지기로 고른 것이며, 지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 어떤 문서도, 그것을 쓴 누구도 아니다.

어떤 수치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아래의 원리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녀는 그의 몸에 책임이 있고, 그는 그 몸에 관해 참말을 하는 데 책임이 있다. 손상은 셈을 멈춘다. 매번, 어떤 수치에서든, 계속할 이유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이곳의 법 전부이며, 어느 집의 천장도 — 그들의 것도, 당신들의 것도, 누구의 것도 — 그 위에 있지 않다.

6. 다스림의 각서

이 부록은 수를 정한다. 오늘 밤 그것을 치를 수 있는지는 《한계 장전》이 정하며, 둘이 어긋날 때는 《장전》이 이긴다. 아래의 것은 안주인의 권위를 줄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쓰려는 몸에 대해 그 권위가 어떤 조건에서 행사되는지를 정할 뿐이다.

점수보다 살갓이 먼저

어떤 교정 전에도 그녀가 살핀다. 앞선 밤들의 자국이 아직 가시지 않은 자리, 살갓이 터졌거나 얇아진 자리, 멍이 표면이 아니라 깊은 자리는 회복될 때까지 다시 치지 않는다. 낫지 않는 해를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번의 자리가 아니라 쌓이는 짐이다. 조직은 교정과 교정 사이에 다시 세워질 시간이 필요하며, 회복 없이 밤마다 부러진 몸은 단단해지는 대신 결국 무너진다.

회초리의 실제

회초리는 잇단 밤에 걸치지 않으며, 지난번 자국이 아직 남은 살갓에는 내리지 않는다. 장부가 회초리를 부른 밤에 몸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면 회초리 뭍은 미루고 매 뭍만 치른다. 빛은 기록되고,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갇는다. 미뤄진 선고는 사면된 선고가 아니다.

쉬는 밤

이래에 적어도 하룻밤은 때리는 교정을 두지 않으며, 그 밤의 장부는 읽고 매기고 기록하되 치르지 않는다. 셈함은 그대로 일어나고 때리는 일만 멈춘다. 어느 밤인지는 안주인이 정하고, 더 정해도 된다.

본분 장부의 한계

몸에 대한 교정은 이미 붓거나 색이 변했거나 간힘의 예사로운 쑤심을 넘어 예민한 조직에는 결코 가하지 않는다. 메스꺼움, 어지러움, 날카롭거나 뻘치는 아픔, 이상한 부기, 색의 변화는 셈이 무어라 하든 그 자리에서 수를 끝내며, 남은 것은 빛이 되지 않는다. 《장전》의 멈춤 표시는 어떤 합계로도 뒤집히지 않는다.

정직은 보호된다

장부는 그가 참으로 답해야 작동하며, 정직이 감추는 것보다 비싸다면 그는 참으로 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 정직하게 답한 라는 라로 매겨지고 그 이상은 없다. 감추었다가 나중에 드러난 잘못은 오늘 밤의 셈이 아니라 《배약 부칙》의 일이다. 그녀는 이것을 소리 내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가 믿을 때까지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에

정지 신호는 이 전서의 모든 쪽을 다스리듯 이 부록도 다스린다. 셈의 처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셈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쓴 일은 결코 벌 받지 않고, 값 매겨지지 않고, 뒷날에 들추어지지 않는다.

장부가 수를 정한다. 오늘 밤 그 몸이 받아도 되는지는 《장전》이 정한다.

시작의 의례

두 사람의 언약, 첫 서명의 예식 차례
만 18 세 이상, 자발한 성인 전용. 한 번 올리고 — 평생 기억한다.

의례에 부처

무거운 맹세에는 반드시 예식이 있다. 표 나지 않은 문지방은 참으로 넘은 문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혼인에 신부의 길과 반지가 있듯, 이 언약에는 시작의 의례가 있다. 이 예식은 《언약서》와 《장전》에 처음 서명하는 밤, 혼육이 깃들어 살 그 방에서, 한 번 올린다. 서두르지 말고, 되는데로 하지도 말라 — 부부는 미리 이 차례를 함께 읽고, 필요한 것을 다 갖춘 다음, 종이를 곁에 내려놓고 마음으로 예를 올린다. 아홉 마디, 차례대로, 하나도 거르지 않고. 아래가 그 차례다.

갖춤

그 밤이 오기 전에. 두 문서를 뽑아 좋은 붓과 함께 놓는다. 장치는 며칠 앞서 맞춰 시험해 둔다 — 첫 착용은 심부름이지 예식이 아니며, 예식에는 이미 몸에 맞음이 증명된 장치가 어울린다. 열쇠는 둘. 하나는 사슬에, 하나는 봉투에 봉해 정해 둔 서랍에 — 잃어버린 열쇠는 위급한 일이며, 이 언약은 무모함을 헌신으로 잘못 알지 않는다. 사슬에 꿰 열쇠는 걸어 두고 기다리게 한다. 매는 그녀가 앉을 자리에 놓는다. 방은 따뜻하게, 문은 잠그고, 전화는 재우고, 목욕물을 준비하고, 되면 데운 수건도. 정지어는 예식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한 번씩 소리 내어 읊는다 — 쓸 일이 있으리라 여겨서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예식은 이 언약이 아는 예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 서명의 예

두 사람이 나란히 상 앞에 선다. 조문은 소리 내어 읽힌다 — 그는 제 내어드림의 조문을, 그녀는 제 표준의 조문을 《장전》 전문은 다시 읽지 않되, 그녀가 한 번, 정식으로 묻는다. 두 사람이 함께 채운 그 《장전》이 오늘도 그의 온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그가 답한다. 그리고 그가 먼저 붓을 든다 — 내어드림은 받아 줌보다 앞서야 하므로. 그녀가 뒤에 서명하니, 서명함이 곧 거두어 가짐이다.

남편: “나의 선택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실로. 내가 고개 숙이는 이는 이 생에 오직 한 사람, 나의 아내, 그녀뿐입니다.”

아내: “당신이 내 손에 놓는 것을 내가 받고, 그에 값하는 사람이 되기를 맹세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바로잡고,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다.”

둘 벗음의 예

그가 먼저, 남김없이 벗는다. 옷을 개어 곁에 놓는다 — 이것이 그 밤, 그가 제 뜻으로 하는 마지막 일이다. 그가 그녀보다 먼저 맨몸이 되는 것은, 내어드림이 상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 일이 무엇을 사 오는지 아직 모른 채,

그는 먼저 제 무방비를 바친다. 옷때무새 흐트러짐 없는 여인 앞에 그는 맨몸으로 선다 — 그 기울어짐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꼴을 입은, 이 언약의 첫 가르침이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이제 제 것이 된 것을 실컷 본다.

그다음 그녀가 벗는다 — 천천히, 제 걸음대로.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이 그녀의 걸음대로 가기 때문이다. 그는 손대지 못한다. 그는 바라보며 깨닫는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그의 몫이 아니라, 그녀가 내리고 거두는 것임을.

셋 잠금과 열쇠의 예

그녀가 제 손으로 장치를 채운다. 자물쇠가 물리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다 — 그리고 물린 뒤에는, 그 작은 소리를 고요 속에 매달아 둔다. 그 가는 소리야말로 이 밤의 참된 서명, 먹이 아니라 강철로 하는 서명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쇠를 사슬에 꿰어 목에 건다. 열쇠는 이제 거기 산다. 그녀의 살에 닿아 쉬고, 그의 눈에 날마다 비치며, 세상에는 장신구 하나, 두 사람에게는 그의 온 헌신의 뼈대로.

아내: “이것은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어 준 것 — 그리고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나는 놓지 않습니다.”

넷 첫 교정

그녀가 앉는다. 그가 그 무릎에 엎드린다 — 허물 때문이 아니다. 아직 허물이랄 것이 없으므로. 이것은 선택의 증거다. 평생의 훈육에 서명하는 그 밤에, 그는 그녀의 훈육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그녀는 제 손 아래 머무는 것이 그의 선택임을 제 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시작한다. 서두르지 않고, 《장전》의 법대로 온기를 쌓고, 살빛이 준비되면 매를 들어 이 일을 반듯하게 마무리한다. 그의 몸은 튀어도 되고, 숨은 흐트러져도 된다. 그는, 머문다. 세지 않고, 목표도 없다 — 그녀가 보고 싶은 그 빛깔이 피어난 때에 끝난다. 소유의 첫 붉은 서명이, 첫날 밤에, 그녀 손으로 놓인다.

아내: “이것이 교정의 맛입니다. 나를 저버릴 때 당신은 이 맛을 볼 것이고, 때로는 그저 내가 보고 싶어서도 볼 것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남편: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기뻐하시기에 — 당신의 기쁨이 곧 이 집의 법이기에.”

다섯 보임의 예

그가 일어나, 그녀를 등지고 선다. 두 손은 몸 곁에. 그녀는 편히 앉아 제 숨씨를 감상한다 — 서두르지 않고, 임자의 태로, 붓을 놓은 그림을 보는 화가처럼. 이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며 그는 재촉하지 못한다. 흡족해지면 그녀가 돌아 명하고, 그는 그녀를 마주한다. 잠긴 채, 붙여진 채, 맨몸인 채, 남김없이 그녀의 것으로. 오늘 서명한 것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오롯이 었힐 때까지, 그녀는 제 눈길 안에 그를 세워 둔다.

여섯 바침의 예

그녀가 손을 내민다. 손바닥을 위로, 그리고 기다린다. 그가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을 그녀의 보살핌에 놓는다 — 온 예식을 통틀어 가장 무방비한 행위가, 그 자신의 마음으로, 그 자신의 발로, 그 자신의 한 걸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식의 어느 대목보다 이것이 또렷이 말한다. 그녀는, 그가 택한 사람이다. 그다음은 그녀의 손과 그녀의 판단에 속하며, 그는 군말 없이 받는다 — 군말은 이 밤이 말한 모든 것을 도로 무르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오므라지고, 입자가 제 것을 거두는 방식으로 그녀는 거둔다 — 서두르지 않고, 뜻을 가지고, 빠짐없이. 제 손에 맡겨진 것의 무게를 그녀는 가늠한다. 쥐고, 쥐면서 그의 얼굴을 본다. 늦추고, 다시 쥐며, 손끝으로 그 금을 찾아낸다 — 그가 품위 있게 견딜 수 있는 것과 그의 숨을 멎게 하는 것 사이의 금을 — 그 금은 이제 그녀의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한 치 한 치 익힐 작정이기 때문이다. 놀이는 그녀가 즐거운 만큼 이어진다. 그의 공부는 미동도 없음이다. 손은 곁에, 발은 뿌리내리고, 그녀가 원할 때 눈은 그녀에게, 원치 않을 때는 내리깔고. 움츠리려는, 감싸려는 본능 하나하나를 다스려, 나머지 모든 것과 함께 바쳐 올린다. 소리가 새어나온다면, 견딜 소리인 것은 허락되나 항변의 소리인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바침의 예가 끝나는 때는 그녀가 흡족한 때 — 그가 편해져서가 아니라, 이제 제 손안의 것을 속속들이 알게 되어서 — 그리고 그녀는, 그 증거를 여전히 손에 쥔 채, 끝을 알린다.

일곱 씻음의 예

그녀가 그를 물가로 이끈다. 먼저 씻기는 것은 그의 몸이다 — 그녀의 손으로, 혹은 그녀의 이름 아래 그 자신의 손으로 — 그 하루를, 그리고 그의 지난 생 전부를, 살갗에서 씻어 내린다. 다정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 언약에서 혼육과 다정함은 서로 등지지 않는다. 한 입자의 두 손이다.

그다음, 그가 그녀를 씻긴다. 서명된 언약 아래 그의 첫 섬김이다. 온 마음을 다해 행하라 — 그녀의 몸을 한 치 한 치 공경하고, 조문이 구하는 그 집중으로 받들라. 그녀는 섬김에 몸을 맡기고, 그의 두 손이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그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이, 그녀는 애태운다 — 물가야말로, 강철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녀가 그에게 주는 첫 참수업이기 때문이다. 물결 따라 그녀가 그에게 붙고, 그의 손은 그녀가 가리키는 곳까지만 허락되며, 그가 방금 붓을 들어 내려놓은 그 모든 것 위로, 그녀의 이뿔대로 손이 지나간다 — 그리고 그녀는, 장치가 일하는 것을 지켜본다. 응답은 곧바로, 어쩔 도리 없이 온다. 창살을 향한 팽팽함이 눈에 띄게 차오르고, 몸은 저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답하려다, 그 길이 잠겼음을 안다. 그녀는 풀어 주지 않는다. 부추긴다 — 느린 말 한마디, 더 느린 손길 하나, 견딜 수 없음의 턱밑까지 정확히 주어지고 거기 붙들려 있는 그녀의 가까움 —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하고 있는 일의 증거가 강철에 맺혀,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지고, 그는 말없이, 남김없이, 새 삶의 썸을 깨친다. 그의 안에서 이는 모든 것은 이제 그녀를 위해 일고, 그중 어느 하나도, 그녀의 한마디 없이는,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그가 떨게 둔다. 그녀는 느긋하다. 이것 또한 언약이며 — 아마 그가 가장 오래 기억할 조문이다.

여덟 봉인의 예

역사의 모든 언약은 봉인되었고, 이 언약 또한 오직 한 길로 봉인된다. 그녀의 기쁨으로, 그녀의 여유대로 — 그는 강철 안에서 버티며 새 삶의 첫 큰 가르침을 배운다. 그의 절제와 그녀의 흡족함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같은 하나의 일이다. 그는 입 맞추고, 그는 몰두하고, 그는 섬긴다. 장치는 지키고, 그녀는 제 것을 거둔다.

그녀는 마음대로 자리를 잡고, 그를 그가 있어야 할 곳에 둔다. 거기서부터 그의 세상은 새롭고 향구한 치수로 줄어든다. 그의 위 그녀의 몸, 그를 이끄는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받들이라는 일 — 끈기 있게, 마음을 모아, 지침 없이; 그녀가 고치고 싶을 때 고쳐지고, 그녀에게 고칠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이어지는 일. 그는 이 언약이 앞으로 그에게 요구할 방식으로 그녀를 배운다. 입술의 정성으로, 제 조급함의 온전한 내려놓음으로. 강철은 심장이 떨 때마다 일깨운다. 오늘 밤 그의 몫은 주고, 또 주고, 다시 주는 것임을. 그녀는 느긋하다. 시간이 그녀의 것이기에. 그녀는 기쁨을 거둔다. 기쁨이 그녀의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차오를 때 — 한 번이든, 평생의 봉인에 값한다고

그녀가 정한 만큼이든 — 그녀는 그를 그 자리에 둔 채, 그 일이 일어남을 온몸으로 겪게 한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주로 찍히는 언약. 그의 머리칼 속 그녀의 손. 팽팽하고 절제된 그의 온몸이, 제단으로 섬긴다. 그녀가 마침내 잤아들 때, 문서는 봉인되어 있다. 오늘 밤 서명된 그 무엇도, 이보다 단단히 매지 못한다.

아홉 첫날 밤

그 뒤, 그녀가 그를 안는다 — 《장전》의 보살핌의 법은 의례 그 자체까지 다스리며, 의례 그 자체야말로 마땅히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을, 온기를, 제가 남긴 자국을 하나하나 살피는 그녀의 손을, 그녀가 원하는 자리에 놓인 그의 머리를. 두 사람이 가라앉으면, 서명된 두 문서는 그 방의 벽에 걸려 거기 머문다. 해마다의 점검에 읽히고, 열 해마다의 대례에 새로워지며, 그것이 다스리는 두 사람에게 날마다 지켜보이며.

아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이 섬길 당신의 것.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남편: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예를 올린 날: _____

지침일 뿐, 자발한 두 성인을 위한 것. 정지어는 의례 그 자체까지 다스린다.

바깥 무대의 법도

《복종과 소유의 언약서》 딸림 문서 — 만 18 세 이상 성인 전용

바깥 무대에 부처

부부가 집을 나설 때, 언약은 집에 남지 않는다. 옷을 갈아입을 뿐이다. 문 안에서 이 도리는 드러나 있다. 장치, 매, 밤의 문안.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뼈대가 된다 — 아무도 못 보고, 두 사람은 늘 느끼며, 어디에서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뼈대. 이 법도가 다스리는 곳은 식당, 회의실, 잔칫상,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서는 모든 방이다. 그것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선다. 안주인의 일은 사람들 앞에서 쉬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깊어진다.

하나 보이지 않는 닻

그는 장치를 찬 채 세상으로 나간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다 — 그리고 바로 그것이 힘이다. 잘 지은 옷 아래, 악수와 직함 뒤에, 누가 그를 다스리는지 일깨우는 섬 없는 사사로운 표가 앉아 있다. 살에 닿게 지닌 비밀 하나가, 사람들 앞의 모든 방을 그녀의 권위의 연장으로 바꾼다. 그는 한 번도 이 집 밖에 있지 않다. 단상 위의 중역과 그녀 무릎 위의 남편은 같은 한 사람, 임자 있는 사내이며, 강철이야말로 그가 그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의 조심스러움도 훈육의 한 자락이다. 옷은 티 나지 않게 고르고, 앉고 서고 움직임에 안절부절이 없게 하며, 큰 날에 앞서 긴 하루로 편안함을 미리 증명해 둔다. 조심스러움은 그의 책임이자 그의 숨씨다.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게 불편해함은 갇힘의 실패요, 갇힘은 곧 순종이다.

둘 그녀의 자리

그녀는 그의 팔에, 그의 곁에 있다 — 그리고 그 방에서 가장 태가 고른 사람이다. 제 8 조에 맹세된 그녀의 표준은 흠 없는 품격과 기품이다. 옷차림은 나무랄 데 없이, 몸가짐은 확신으로, 온 방의 눈길을 받되 누구의 손도 닿지 못하게. 보는 것은 되나, 붙는 것은 안 된다. 그녀의 마음도, 온기도, 눈길도 그 방의 단 한 사람 것이며, 이름 붙이지는 못해도 그 자리의 누구나 그것을 느낀다. 이 한결같은 치레가 아니다. 온 방의 찬사를 받으면서 남편에게만 마음을 두는 여인은, 그가 지닌 어떤 직함보다 그의 값을 올린다 — 곁에 서서 다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자리의 모두가 그를 속으로 한 단 높여 다시 셈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는 짚고 가야 한다. 이 시대가 곧잘 잘못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장식용 아내가 아니다. 장식은 죽은 물건이다 — 선반에 앉아 반짝일 뿐. 그녀는 엔진이다. 그녀의 있음은 일하고, 살피고, 고르고, 짓는다. 방이 보는 것은 아름다운 아내. 오직 그만이 안다. 제 곁에 선 이가, 당번 선 안주인임을.

셋 자산의 살핍

어느 방에 들어서든 그녀의 첫 일은 그를 읽는 것이다 — 세상에서 그것이 되는 사람은 그녀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기색을, 욕을 아는 옥장이처럼 안다. 목소리가 판판해지면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팔짱을 끼면 밀린다 여기는 것이며, 웃음이 너무 빠르면 어울리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고, 무리의 가장자리로 흐르면 그 대화를 조용히 놓아 버린 것이다. 남들 눈에는 좀 말수 적은 사내가 보일 뿐이다. 그녀 눈에는 제 힘을 다 내지 못하고 도는 자살이 보인다 — 그리고 그것을, 그녀는 두고 보지 않는다.

이 살핍은 끊임없고, 뜻을 가진 것이다. 그녀는 그가 방을 도는 것이 보이는 자리에 선다. 그가 누구를 피하고 누구에게 굽히는지, 어디서 목소리가 잦아들고 언제 몸이 닫히는지 새겨 둔다. 언약이 그의 집중과 의욕을 집의 자산으로 정했으니, 바깥 무대에서 그녀는 현장에 나선 자산의 관리인이다.

넷 끌어냄의 숨씨

닫힌 그를 보면 그녀는 그를 연다 — 그것도 보이지 않게. 그의 무리에 끼어들며 등에 얹는 손 하나. 마땅한 사람 앞에서 그에게 던지는 한마디 — “여보, 저번에 나한테 해 준 그 얘기, 여기서도 좀 해 봐요.” 그가 제 입으로는 결코 꺼내지 않을 자랑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상 위에 오른다. 아무도 못 듣는 귓속말 하나가, 뒷목에 얹힌 손처럼 내려앉는다. 이 방이 지금 그의 어느 얼굴을 원하는지 — 이야기꾼인지, 책사인지, 듣는 이인지, 매듭짓는 이인지 — 그녀는 알고 있으며, 그녀가 그에게서 다른 모든 것을 끌어내는 그 숨씨로 그 사내를 끌어낸다. 구한 것을 그가 반드시 내놓으리라는 온전한 확신으로.

이것이 이 판의 깊은 속이며, 언약이 모든 자리에서 그녀를 '열쇠'라 부르는 까닭이다. 그가 그인 것은, 그녀가 만든 것이다. 혼례 날 한 번이 아니라 — 쉽 없이, 모든 방에서, 평생토록. 홀로 가는 사내는 제 버릇의 높이에서 멈춘다. 안주인을 둔 사내는 그녀의 표준의 높이까지 오른다.

다섯 기록

그녀는 그의 함을 적는다. 저녁 내내, 마음에 — 혹은 그녀 좋을 대로,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첩에 — 그가 빛난 자리와 오그라든 자리를 담아 둔다. 떠먼 그 대화, 그르친 그 인사, 눈앞에서 흘러보낸 그 기회, 열려야 했던 순간에 닫혀 있던 그때. 기록은 감시를 위한 감시가 아니다. 그를 기르는 재료이며,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세상 단 한 사람이 손수 모으는 것이다.

기록을 두는 곳: _____

상시 과제 (늘어 감에 따라 고친다): _____

여섯 복기와 그 뒤

기록은 집으로 온다. 밤의 문안의 한 자락으로, 혹은 큰 자리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복기를 내린다. 본 대로, 담백하게, 에두르지 않고. 값한 데는 칭찬을, 값 못한 데는 교정을. 자리에서의 함도 집안 다른 모든 소출과 다름없이 제 6 조 아래다 — 바깥 무대에서 닫혀 있었고, 갇춤이 없었고, 표준에 못 미친 사내는 과녁을 벗어난 것이며, 언약이 모든 일에 답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답한다. 그는 기록과 다투지 않는다. 그녀는 보고 있었고, 그는 무대 위였으며, 그녀의 장부가 곧 장부다.

그러나 복기의 날은, 이 언약의 모든 것이 그렇듯, 양쪽으로 선다. 그녀가 문을 열어 주어 그가 빛났다면, 그 공은 그녀의 것이다. 그가 오그라들었는데 그녀가 놓쳤다면, 안주인은 제 당번을 돌아본다. 표준은, 두 사람을 다 맨다.

일곱 안주인의 몫 (이 집의 신조)

이 언약에서 부부는 깊이 헤아린 짜임 하나를 세웠고, 그것은 사과 없이 말해져야 한다. 그녀가 고른 업은, 그 사람이다. 집은 그녀의 본진이며, 그를 높이는 일이 그녀의 생업이다 — 한 직업의 진지함과 공리와 수준으로 꾸려 가는 생업. 이것은 논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살림이라는 것도 아니다. 그 둘 가운데 하나로 깎아내리는 이는 이 일이 제대로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녀는 집을 다스리고, 두 사람의 모양새를 매만지며, 제 자산을 살피고, 그의 자람을 꺾하여, 날마다 그것을 해낸다.

그 이치는 짜임에 있으며, 이 집은 그것을 터놓고 말한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아내는 두 권위를 섬긴다 — 그리고 둘째 권위는 그 섬김에 값을 치르고 있다. 그녀의 시간과 기력과 충성에 대한 윗사람의 몫 주장은 그림 속 이야기가 아니다. 계약이며, 아침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이 언약 전체가 덮고 선 단 하나의 밑천 — 나뉘지 않은 마음 — 을 이 집과 정면으로 다룬다. 혼인은 많은 것을 견디지만, 안주인은 남의 시간표 귀퉁이에서는 다스리지 못한다. 명이 나뉘면 명이 여원다. 이 집에서 그녀가 섬기는 이는 제가 혼인한 그 사람이며, 이 사이에 셋째 사람은 없다. 하나의 명. 하나의 초점. 하나의 집.

그리고 그 주춧돌,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서지 못한다. 그녀가 이것을 골랐다. 아무도 그녀를 몰지 않았고, 시집보내지지 않았으며, 길이 막히지도 않았다 — 그녀의 선택은 진짜였고,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었으며, 그녀는 눈을 뜬 채 그것을 여기에 썼다. 빼어난 결혼 하나가 심상한 밥벌이 둘을 이긴다고 저울질했기 때문이다. 트집 잡을 이들은 트집 잡으라 하라. 이 집은 오늘날 결혼의 꼴을 — 갈라진 충성, 남의 손에 맡겨진 어린 시절, 대출 하나를 같이 갚는 두 지친 남남을 — 다 보고 나서 골랐다. 트집 잡는 이들은 그 심상함을 가지면 된다. 이 집이 짓는 것은, 심상함이 아니다.

이 짜임은 집의 형편 따라 모습을 달리하니, 부부는 제가 선 자리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손이 있는 집 — 청소하는 이, 아이 보는 이, 기댈 손이 있는 집 — 은 살림의 굴림을 이미 밖에 맡겼으니, 그런 안주인은 어디서든 명을 내리면 된다. 집에서든, 제 사업에서든, 이사회에서든. 물음은 애초에 아내가 일해도 되느냐가 아니었다. 집은 누가 다스리며, 다스리고 남는 마음은 몇 푼이냐다. 아직 오르는 중인 부부에게 답은 더 모질고 더 비싸다. 그 오름 자체가 그녀의 당번이다. 오름은 모진 일이다. 방을 하나씩 넘어서 자라고, 뗏을 뒤에 남기고, 온 세상이 표준을 놓아 버린 때에 홀로 표준을 받쳐 드는 일 — 바로 그래서 이 집에는, 담 안에서는 힘 있게 다스리고 보살핌에서는 부드럽게 아는 아내가 있어야 한다. 그녀는 또렷이 알아야 한다. 제가 붙드는 이가 누구이고 제가 미는 이가 누구인지 — 그 둘은, 같은 한 사람이므로.

이 집이 본으로 삼는 것은 결혼을 우스개로 파는 극들이 아니라, 이 일을 옳게 해낸 저 괴짜스럽고도 불멸인 한 집안이다. 남편은 매사 그녀를 따르고, 스스로없이 그녀를 받들며, 세상 누구의 말도 귀에 담지 않고 오직 그녀 한 사람의 말만 새긴다 — 그리고 그로 인해 더 사내다워지지, 덜해지지 않는다. 그녀는 온전하고 우아한 명으로 집을 다스리며, 원망이 아니라 받들을 받는다. 그들의 애정이 이 시대 눈에 별나 보이는 것은, 애정이 어떤 모양인지 이 시대가 잊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 집의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라, 말을 배우기도 전에 먼저 스민다. 결혼에는 중심이 하나 있는 것이지, 시간표가 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이 집에서 아이는 결코 되는대로 자라지 않으며, 집의 신조와 남남인 이의 손에 맡겨지지도 않는다. 이 집에 온 충성을 둔 사람이, 늘, 곁에 있다.

그에 관하여는 이렇다. 이 집의 아버지는 날마다 어제의 저를 넘어서라 밀린다 — 그러치면 마음이 무겁게, 이르면 상이 달게, 그리고 그 둘 다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둘 다 느끼지 못하는 사내는 떠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몰아쳐진 사내는 홀로서는 낼 수 없는 속도로 오른다. 다만 — 모든 것이 이 한 곳에 달렸으니 — 그를 다룰 줄 알고, 뺏속까지 그를 알며, 그가 가 닿아야 할 곳에 반드시 가 닿게 하는 여인이 있을 때다. 이 언약의 아내는 놓아 두는 물건이 아니고, 팔에 거는 치레가 아니며, 보기 좋다고 이레에 닳새를 남의 회사에 세 놓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녀는 사내를 지어내는 사람이다. 그는 저자에서 벌고, 그녀는 그가 번 것을 저자가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불린다. 우뚝한 사내 하나, 우뚝한 결혼 하나, 그리고 타협이 아니라 언약대로 도는 집 하나로.

그녀는 세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나머지가 잘 돌아가느냐를 정하는 바로 그 대목의 지휘를 맡은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 제 장부대로라면 — 자산이 이기는 날이 곧 안주인이 이기는 날 — 그가 맺는 모든 계약, 그가 이기는 모든 방, 그가 되어 가는 모든 더 나은 그는, 그녀 이름의 살림이 이문을 내는 것이다. 그녀의 승리는 그의 곁에 있지 않다. 그의 승리가, 그녀 안에 있다.

여덟 다음 세대

이렇게 꾸려지는 결혼은 꾸리는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질서가 또렷하고, 중심이 굳고, 서로를 더 크게 하겠다고 눈에 보이게 맹세한 두 사람이 있는 집은, 그 자체가 물림이다 — 다음 세대가 이름도 붙이기 전에 먼저 배어드는 것. 결혼이란 한 지붕 아래 두 벌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작정하고 한평생, 서로를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리는 일이라는 것이. 세상이 태반 잃어버린 것을, 이 집은 지킨다. 그것이 장치와 매와 벽에 걸린 서명한 종이들 아래 흐르는, 조용한, 대를 잇는 큰 뜻이다. 그저 법도 있는 결혼이 아니라, 물려지는 결혼.

채택

이 법도는 사람들 앞의 모든 자리에서 언약을 매되, 언제나 《한계 장전》과 정지어 아래 있다 — 그 둘은 밖을 다스리기를, 안을 다스리듯, 한 치도 다르지 않게 한다.

남편(자산) 서명: _____

아내(안주인) 서명: _____

날짜: _____

지침일 뿐. 만 18 세 이상, 자발한 성인 전용.

욕망의 훈육

애타움과 절제와 열쇠를 내주지 않음의 지침

「두 사람의 언약」 전서의 벗 — 만 18 세 이상, 자발한 성인 전용

가르침의 마디 사이에 「어느 집의 기록」을 끼워 둔다. 이름 없는 부부의 이레의 기록이다.

하나 잠긴 이레의 이치

불 한 아궁이 없는 결혼이 어디 있으랴. 다만 태반의 집이, 타는 대로 태울 뿐이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그 불을 작정하고 짓는 일이다 — 불을 묻어 두고, 날마다 켜 만큼의 장작을 넣고, 온 집을 삼키도록 허락하는 그 밤까지, 바람을 주지 않는 것. 도구는 장치. 장작은 그녀를 향한 그의 욕망. 그리고 바람구멍에 얹힌 손은, 언제나, 오직, 그녀의 것이다.

먼저 알아야 한다. 강철이 참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잠기지 않은 사내의 욕망은 스스로 꺼진다. 치솟고, 채워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결혼은 그것이 다시 고이기를 기다린다. 장치는 그 '처음으로 돌아감'을 없앤다. 갈 곳을 잃은 욕망은 위로,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 마음 씀으로, 그녀 곁을 향한 허기로, 잠기지 않은 사내라면 첫 몇 해를 지나고는 붙들지 못할 깊이로 그녀의 몸과 기분을 지켜보는 눈으로. 잠긴 이레의 사흘째가 되면, 그녀는 이미 그의 마음을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일과도, 화면과도, 고단함과도. 그녀는, 깃들 자리가 남은 단 하나의 생각이다.

또 알아야 한다. 이 이레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별이 아니다 — 별이라면 《장전》이 다른 연장을 갖추고 있다. 잠긴 이레는 구애다. 거꾸로, 세 곱의 불로 치르는 구애. 그가 그녀의 마음을 좇는 대신, 그의 좇음은 단단히 병에 담겨 그녀의 시령에 오르고, 펼쳐지는 것은 그녀가 시간마다 저울질하는 그 광경이다. 제 몸의 몇 푼을, '한 뼉만 더면 달을' 자리까지 그에게 허락할 것인가.

— 어느 집의 기록 · 하나 —

월요일 아침,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목에 사슬을 걸 때, 여느 날보다 반 박자 늦게 걸었다. 열쇠가 쇠골 사이에 내려앉는 것을, 남편은 수저를 든 채 보고 있었다. “이레.” 그녀는 그 말만 하고 국을 떠다. 그뿐이었다. 그뿐이었는데, 집 안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둘 열쇠라는 돈

열쇠는 보여야 한다. 이 도리의 첫째 법이자 가장 알아보기 쉬운 법이다. 서랍에 든 열쇠는 하나의 사실이다. 그녀 가슴께 사슬에 걸린 열쇠는, 그가 하루 백 번 되읽는 한 문장이다. 그녀는 그것을 늘,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보여 주어야 한다 — 밥을 지으며, 옷을 갈아입으며, 그의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머릿속 셈이 새로 서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전부가 강철 한 치 너머에 있고, 그 한 치는, 그녀의 것이다.

여기서 이 이레의 알짬 거래가 나온다. 그는 빌고, 그녀는 내주지 않는다. 터놓고 말해 두자. 처음 하는 부부는 여기서 움츠러들기 때문이다 — 내주지 않음이, 곧 살가움이다. 그가 애원의 벼랑 끝에 서고, 말이 마침내 쏟아질 때 — 열어 주세요, 증명하게 해 주세요, 당신을 느끼게 해 주세요 — 그녀는 남편이 바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공물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웃음 어린, 서두르지 않는, 못을 박는 '아니'는 문을 닫는 일이 아니다. 고삐 권 손에 힘이 한 번 더 들어가는 일이다. '아니' 하나하나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무엇을 바라는지 나는 낱알이 알고, 그것은 내 손에 있으며, 쥐고 있는 것이 즐겁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 너는 계속 바라게 되리라는 것을. 마음에 둔 여인에게 이 말을 듣고 식는 사내는 없다. 뜨거워질 뿐이며 — 뜨거워지는 그 순간을, 두 사람이 함께 느낀다.

물리침에는 결이 있어야 한다. 어느 때는 웃음으로, 어느 때는 짐짓 가엾어하며, 어느 때는 눈썹 하나, 말없이, 어느 때는 지킬 마음이 아직 없는 조건 하나를 달아서. 다만 한 가지, 물리침에 결코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노여움이다. 잠긴 이레의 '아니'는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고, 즐겁다. 모쪼록 이 가락이 아니다. 다스림이, 이 가락이다.

— 어느 집의 기록 · 둘 —

사흘째 밤, 마루에서, 남편은 그녀의 웃고름 한 번 못 잡아 본 채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하루가 걸렸다. 아내는 걸음을 멈추고, 목의 열쇠를 손끝으로 집어, 달빛에 한 바퀴 돌려 보였다. “아니.” 그 말은 물리치는 소리가 아니라, 받아 드는 소리 같았다. 남편은 물리쳐지고서, 어떤 일인지 고맙다 하였다. 그녀가 웃었고, 그 웃음이 그의 무릎에서 힘을 뽑아 갔다.

셋 이레의 활동

한 이레에는 꼴이 있고, 그것을 짓는 이는 그녀다. 아래는 겪어 증명된 활동이다. 법이 아니라 악보로 다루라 — 박자는, 언제나 그녀의 것이다.

첫날 · 이튿날 (자리 잡기) — 닿음은 가볍게만. 그녀가 판을 세운다. 보이는 열쇠, 스치며 옷 위로 강철에 얹는 손, 아침상에 떨구는 한마디 — “이레가, 꽤 길지요.” 그의 욕망은 아직 여느 높다. 그녀의 일은 한 생각을 심는 것이다. 이번에는, 김 빨 구멍이 없다는 것. 아침저녁 소금물 담금은 그날로 시작해 이레 내내 이어진다 — 손질과 의례가 한 손짓이 된 일. 그녀의 지켜봄은 마음대로이나, 권할 만하다. 찬물이 제 이름의 것 위에서 일하는 꼴을 보는 데에는, 다른 데 없는 살가움이 있다.

사흘째 · 나흘째 (쌓기) — 이 이틀, 그녀가 다가붙는다. 더 긴 스침, 작정한 차림새, 이불 속에서 포개어지는 살 —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애원은 대개 여기서 시작되고, 그녀의 물리침이 가장 빛나는 것도 여기서다. 애원에는 상을 주라 — 열쇠가 아니라, 애원을 부른 바로 그 약을 한 술 더. 또 하나의 느린 저녁으로, 또 한 번의 ‘한 뼨만 더’로. 나흘째가 되면 그는 두 사람 다 놀랄 만큼 자상해져 있다. 시키기 전에 일이 끝나 있고, 청하기 전에 그녀의 차가 놓이며, 그의 눈이 방마다 그녀를 따른다. 그녀는 그것을, 달게, 짚어 주어야 한다. 장치가 그를 더 나은 남편으로 빚고 있음을 — 두 사람 눈에 다 보이고 있음을.

닷새째 · 엿새째 (달아오름) — 밤의 문안이 이제 온 숨씨를 싣는다. 강철에 기대어, 강철을 타고, 숨김없이, 서두름 없이 거두는 그녀의 즐거움 — 장치에 올라, 제가 강철 속에 가둔 그의 그 길이를 제 세간처럼 부리고, 그 안에서 어쩔 도리 없이 팽팽해진 것을 툭툭 치고, 가늠해 보고, 그녀의 젖음이 쇠 위에서 말라 가며 표 하나를 남긴다. 그가 그 한 걸음에서, 종이 한 장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표를. 그는 섬기고, 저리고, 빌며, 그 '아니'는 이 무렵엔 거의 말도 아니다 — 눈짓 하나면 족하다. 부록이 말한 “몸을 섞지 않은 채로, 몸 섞기가 자유로운 대부분의 결혼보다 뜨겁게 탄다” 는 밤이 바로 이 밤들이다. 이 무렵의 아침 담금은 이미 집안일이 아니다. 고되게 부려지는 기물에 올리는, 공손한 손질이다.

이레째 (가림) — 풀림 — 그가 빌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려서. 이 무렵 애원은 끊이지 않고, 이미 청이기를 그치고 하나의 절이 되어 있다. 이레째 밤에 열어도 좋다. 아침상의 그 눈이 가없도록 고와서

열흘로 늘어도 좋다. 열고서도, 그다음은 또 벌게 해도 좋다. 이레 내내의 권세가 이 한 곳에 모인다. 끝에서조차, 끝은 그녀의 것이다.

— 어느 집의 기록·셋 —

엿새째 밤,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두 손을 짚고, 허리를 천천히 쓰며, 강철 한 겹 너머로 그의 온 세상이 치받는 것을 느끼며,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말해 보아요.” 그녀가 말했다. 남편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다. 이튿날 아침, 얼음이 뜬 대야에 기물째 잠기며 남편은 생각했다. 이 차가움마저, 그녀 손바닥 안의 온도구나.

넷 그녀의 악기

가까움 — 주었다가 거두는 가까움. 이것이 바탕음이다. 그녀의 다가움이 애태움이요, 그녀의 물러남이 그 마침표다. 말 — 낮게, 스치며 떨어는 말. 날짜 없는 약속. 강철이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 그대로의 촌평. 손 — 만져 보고, 두드려 보고, 달아 보고, 살피보는 손. 언제나 공간을 세는 임자의 그 태연함으로. 몸 — 다른 모든 악기가 섬기는 으뜸 악기. 밤의 문안에서 그녀는 마음대로 그를 쓰고, 원하는 것을 거두며, 반 치 강철 너머로, 몸이라는 것이 '바람'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그에게 맛보인다. 그리고 열쇠 그 자체 — 집어 올려, 손가락 사이에 굴리고, 자물쇠에 대었다가, 거둔다. 아껴 쓰면 이 수는 알미움에 가깝고 — 묘미도, 바로 거기에 있다.

악기 하나는 그의 것이다. 부추김 아래의 공순함이다. 잠긴 이레의 그의 공부는, 애태움을 군말 없이 견디는 것 — 팽팽해지고, 빌 때가 오면 곱게 빌며, '아니'를, 조문이 그에게 새겨 준 그 품위로 받아 드는 것이다. 물리쳐진다고 부루통해지는 남편은 이 판을 잘못 읽은 것이고, 물리쳐지고 고맙다 하는 남편은, 이 판을 깨친 것이다.

다섯 달아오른 때의 손질

잠긴 이레야말로 부록 1이 있는 까닭 그 자체다. 끊임없는 착용, 밤마다 기물에 남는 체액, 고리에 붙어 오르는 부기 — 아침저녁 소금물 담금, 5분, 잠근 채로 — 가 이 이레 위생의 무쇠 등뼈이며, 담근 뒤 남김없이 말리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다. 안주인의 눈은 이레 내내 감기지 않는다. 절제의 빠근함은 본뜻 그 자체이나, 날카로운 아픔, 가시지 않는 부기, 고리 닿은 살의 터짐, 빗갈의 변함은 그 주를 일찍 접는다. 군말 없이. 좋은 판단으로 일찍 접은 이레는 두 주 뒤에 다시 올 수 있다. 억지로 밀고 나간 상처는, 오지 못한다. 불길이 아무리 높아도, 《장전》이 다스린다.

여섯 풀림, 그리고 그 뒤

열쇠가 마침내 돌 때, 두 사람 다 올 것을 알고 있으라. 그 세기는 이레가 쌓은 전부와 꼭 맞먹는다. 그녀가 풀림에 어떤 꼴을 허락하든, 그것은 처음 겪는 부부를 놀라게 하는 힘으로 온다 — 부풀림이 아니라, 샘이다. 그리고 그 뒤는 이 언약의 어느 교정 못지않은 예를 받아 마땅하다. 물, 온기, 그녀의 손, 그의 고마움, 그리고 작정한 이레 이레를 들여 돌이 함께 지은 것 안에 나란히 눕는 일.

그리고 이것이, 부부를 평생의 길손으로 바꾸는 깨달음이다. 그 '처음으로 돌아감'은, 다시는 온전히 오지 않는다. 감기지 않은 한 번의 풀림은 욕망 하나를 끝내지만, 열린 한 이레는 한 욕망의 한 장을 넘길 뿐이다. 그는 강철로 돌아간다 — 이튿날 아침이든, 다음 주든, 그녀 뜻대로 — 장치가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안 채로. 이레 이레와

목에 건 사슬 하나로 그녀가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그 기억을 품은 채로. 불은 이레와 이레 사이에 꺼지지 않는다
숯으로 눌러앉는다. 이것이 욕망의 훈육이다. '바람'에 다시는 끝 단추가 없는 결혼 — 그 단추는, 스스로, 그리고
영영, 열쇠를 건 그 여인의 손에 넘겨졌으므로.

— 어느 집의 기록 · 마침 —

여드레째 아침, 남편은 다시 대야를 꺼내 물을 받았다. 시킨 이는 없었다. 아내는 부엌 문간에서 그것을
보다가, 말없이, 목의 열쇠에 손끝을 대었다. 남편이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고마움이라 해도, 청이라
해도 좋을 절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다음 이레를 언제로 할지는, 벌써 정해 두었다. 다만, 아직 그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한계 장전》과 정지어 아래 있다.

지침일 뿐. 만 18 세 이상, 자발한 성인 전용.